

우리네 아이들

파시⁵
23

95. 3

썩/익/삭/쪽/턱/악/△/연/업/쪽

탁아월동의 길잡이 1995년 3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28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5.3



자/역/사/화/특/약/△/연/접/화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5년 3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28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5.3월호 〈통권 28호〉

짜 임 새



〈표지사진 설명〉

봄기운이 땅에서부터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바람공기를 맘껏 마시며,
이보다 더 넓은 세상이
있음을 그들이 알 수 있는
새 봄이...

- 일하며 생각하며 / 2
꽃을 꽃이라 부르는 기쁨 김용택
- 기획 1 / 4
미국에서의 탁아제정분담 현황 이정희
- 기획 2 / 8
봄철 어린이집 식단 오경민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12
동네 환경공해의 주범...? 변미양
- 좋은 그림책 소개 / 16
- 지상강연 1 / 18
'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인권운동사랑방
- 지상강연 2 / 26
지방자치시대와 교통정책 김은희
- 작은 기획 / 28
"경의선, 함경선 위를 달려볼래요!" 전경숙
- 특집 / 30
열린 정치 생활정치,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 편집부
- 현장취재 / 33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대회 편집부
- 건강하게 살시다 / 36
유·소아기의 피부발진(3) 이흥진
- 긴급분석 / 38
'95년 보육사업지침 분석 박금희
- 활동보고 / 44
'95년 교사 겨울수련회 및 제10회 정기총회 편집부
- 시사말쑥이 / 47
여성, 보이지 않는 희생자 편집부
- 글마당 / 50
탁아소별곡 우리동네아기동지
우리들의 목소리 김강민, 김태일
- 소식과 소식 / 55
- 탁아계 풍향 / 58
- 벼룩시장 / 61
- 편집부에서 / 62

■ 일하며 생각하며

꽃을 꽃이라 부르는 기쁨

김용택¹⁾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하늘만 뻗어 올라다보이는 산골 중에서도 산골마을이다. 이십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사는 곳이고, 나는 우리 마을에서 삼십여분쯤 걸어서 갈 수 있는 국민학교 선생이기 때문에 퇴근시간이 아주 빠르다.

퇴근 후 별다른 일이 있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해서 집에 오면 언제나 다섯시가 조금 넘는다.

자전거로 동구에 들어서면 강둑이나 강변에서 놀고 있던 네 살박이 우리 민세가 먼저 나를 발견하고는 아빠를 목이 터져라 부르며 달려온다.

민세를 만나면 자전거 앞 안장에 민세를 태우고 동네 강변길을 한번 왔다갔다 해주고, 집에 들어가 그날 배달된 우편물을 살펴보고는 바로 팔개월 된 민해를 포대기로 업고 민세 손을 잡고 강변이나 느티나무 밑이나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으로 간다.

강변에서 놀 때는 강변에 포대기를 깔고 민해를 앉혀놓으면 민세는 부지런히 꽃들을 꺾어 민해에게 가져온다.

민세가 민해를 기쁘게 하며 관심을 가져주면 민해가 굉장히 기뻐하고, 민해가 기뻐하면 민세는 더욱 신이 나서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한다.

민해는 송아지와 소를 굉장히 좋아한다. 송아지가 푸른 풀밭을 치달리면 저도 등 뒤에 업혀 훌쩍 뛰거나 엉덩이를 들썩이고 손을 휘저으며 뽀라고 소리친다.

강 건너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갈 때나 산책을 할 때, 나는 언제나 민세의 하루일을 물어본다. 엄마에게 야단맞지는 않았느냐, 왜 야단맞았느냐, 엄마가 어디를 때리더냐, 민해랑 잘 놀았느냐, 밥은 잘 먹었느냐, 할머니는 어디로 일을 가셨느냐 등등.

그러면 민세는 일일이 대답을 한다. 잘못된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잘 타이르며 그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해주면 민세는 금세 수궁을 하는 눈치가 역력하다.

길을 걷고 강변에서 노는 동안 민세는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 “저건 뭐야?” “응, 그건 보리야.” “저건 무슨 새야?” “응, 그건 물새다. 까치다, 비다, 감자다, 고추다. 깨다, 호박이다, 새도 우리처럼 식구가 있고 집도 있단다.”

이렇게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설명하는 동안, 민세는 이제 우리 동네의 어지간한 나

1) 국민학교 교사로, 시집 『섬진강』, 『꽃산 가는 길』 등과 산문집 『꽃을 꽃이라 부르는 기쁨』 등이 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하는 동안
꽃을 꽃이라 부르는 기쁨을 다시 얻고,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는 기쁨을
새로이 터득한다.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익히고 배우며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과 엄숙함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무 이름이나 곡식, 새, 풀 등의 이름은 거의 다 익히게 되었다.

강 건너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가 민해를 보듬고 일으키는 동안 내가 일을 거들러치면, 민세는 또 나를 따라서 호미나 쟁이를 들고 무슨 것이든지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또 할머니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해댄다.

오늘은 처음으로 민세가 내 한 손만을 잡고 징검다리를 다 건너 날이기도 한다. 간격이 좁은 것부터 넓은 것을 조금씩 조금씩 건너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강의 가운데 몇 개만 빼놓고 혼자 건널 수 있게 되었다.

‘방안의 꽃’이라 부르며 웅가를 해도 예쁘고, 울어도 예쁘던 민세가 방 안에서 마루로, 마루에서 마당으로, 마당에서 마을 길로, 마을 길에서 이웃으로, 들로 산으로 나아가며 세계를 배운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놀고 이야기하는 동안 민세와 민해를 통해서 꽃을 꽃이라 부르는 기쁨을 다시 얻고, 사람을 사람이라 부르는 기쁨을 새로이 터득한다. 아이들과 함께 세상을 익히고 배우며 생명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과 엄숙함을 배워나가는 것이다.

민세는 그래서 나에게 또다른 삶의 스승이다.

편지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되는 것만 같은 3월.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지만 아이들의 눈망울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하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좋은 글이 있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 기획 1.

미국에서의 탁아제정분담 현황

이정희 / 정책연구부

여기 소개하는 내용은 Day Care For Young Children이라는 책의 한 장을 이루는 Day care for young children in the United States(Deborah Phillips가 씀)중에서 국가 및 주, 지방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을 뽑은 것이다. 이번에 소개하는 자료는 1991년의 자료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것이며 미국의 전반적인 탁아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 몇 안되는 자료이다. '비용분담상황' 및 '분담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다 최근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나은 자료를 확보하여 계속 소개하기로 하겠다.

미국에서 탁아는 잡동사니 누비이불에 묘사된다. 이는 탁아의 일률적이지 못한 통제와 공급, 질, 가격과 관련한 전국데이터의 부족과 미국가정이 이용하는 시설의 다양함에서 주어진 분석이다. 미국의 이러한 일관된 탁아체계의 부족은 아동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 부족에 대하여 개인주의의 중시와 가정의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회체계의 유산이다. 그리고 미국의 탁아에 있어 연방의 역할은 세가지로 전개되었다. 첫째는 복지입법과 관련하여 저임금의 가족들을 위한 대책, 둘째 가난을 제거하려는 장기간의 목적으로 저임금의 아이들에게 포괄적인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헤드스타트에 대한 지원, 세번째는 조세제도를 통해 탁아에 물질적 지원을 한 것. 이러한 세가지는 오늘날에도 남아있고, 주와 지방정부의 참가로 연결되고 있다.

1. 탁아자금

연방·주 지역정부는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주는 것과 개인에게 환불하는 tax credits과 같은 간접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탁아에 약간의 기금을 제공한다. 정부지원은 시설과 규제받는 가정탁아에 해당되는 경향이 있는데, 많은 공적 기금프로그램이 규제받는 서비스에서 이용되길 바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리든 비영리든 규제받는 서비스들은 공적 기금을 받는다. 예를 들면, 1977년에는 영리시설의 25%, 비영리

시설의 57%가 적어도 하나의 연방프로그램으로부터 기금을 받았다. 자선조직이나 재단 또한 탁아소에 적은 양을 기부한다.

고용주들은 비(非)부모기금의 또 하나의 요소이다. 대략 전국적으로 600만 기업중 2500이 작업장 내에 있거나 가까운 탁아소에 어떤 형태로든 지원한다. 고용주지원의 보다 일반적인 방식은 '봉급공제'이다. 봉급의 일부가 비과세 탁아비용의 형태로 지불되는 방식이다. 큰 체계에서 보면 고용주는 미국에서 탁아지원의 주요한 source는 아니다.

미국에서 대부분의 탁아는 개별적으로 부모로부터 요금을 받는 것으로 기금이 마련된다. 이는 가정에 상당한 지출이 될 수 있다. 1985년 5세이하 아동보호에 대한 주 평균지출이 약 37\$였다. 그래서 일년에 52주일에 대해서 연평균 2000\$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그러나 가격은 탁아유형과 아동연령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친척에 의한 비공식적 보호는 미국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탁아선택이다. 방문탁아나 시설탁아는 가장 비싸다. 예를 들어, 보스턴에서 전일제 유모에 대한 월별지출은 260\$에서 340\$에 이르고, 시설탁아는 75\$~150\$, 그리고 가정탁아는 40\$~160\$에 이른다. 이런 가격의 최고치는 젓먹이에 대한 것이다. 다른 한편 친척보호는 빈번히 무료로 제공된다.

2. 탁아지원의 현 양태

<연방의 탁아지원>

대부분의 공적지원은 연방정부로부터 나온다. 연방지원은 선택적 필요에 대한 선택적 대응의 복합체이다.(위 세가지 참조) 헤드스타트와 Social Services Block Grant(SSBG)는 가장 큰 직접적인 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약 1200개의 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 모든 적격한 아동들의 16%정도인 452,000명의 3-4세 아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SBG는 연방기금을 사회복지 영역을 위하여 주(states)에 주고 있다. 이 기금의 특별한 사용에 대한 판단의 제량은 전적으로 주에 맡겨져 있다. 1981년 이전에는 이 기금의 20%가 탁아에 쓰였다. 그 후로 SSBG기금의 분포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저소득가정들은 헤드스타트 또는 SSBG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일하고 있는 저임금의 어머니들 또한 탁아지원금의 선택적 출처에 해당된다. 특히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받는 고용된 엄마들은 day care disregard에 해당된다. 이 disregard하에서, AFDC엄마들은 탁아소에 직접 보육료를 지불하면 AFDC수당이 계산되기 전에 매달 받는 봉급에서 그 지불된 보육료만큼 공제가 된다.(한달에 한 아이당 최고 160\$까지 공제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탁아비를 내거나 일하는것에 있어 불리하지 않게 된다. 26개주와 콜롬비아지역에서는 남편이 실직하게 되면 엄마들은 AFDC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이 disregard에 자격이 있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부모가 다 있는

가정은 자격이 못된다. (이러한 것은 1988년에서처럼 미국에서 정책에 반영되었고, 현재는 각 주들은 새로 만든 개혁법을 수행하고 있다. 그 법은 모든 주가 실업상태인 남편이 있는 엄마들에게 AFDC에 자격이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 세 법은 또한 매달 2세 이상의 아이들에 대하여 175\$, 2세이하의 아이들에게 200\$씩 주는 것으로 아동보호 disregard를 늘렸다.)

Dependent Care Block Grant(DCBG)는 연방의 탁아소 지원의 또다른 중요한 원천이다. 세금을 내는 가난하지 않는 가정은 한아이에 2,400\$, 두아이에 4,800\$의 비용에 달하는 탁아소 비용의 일부분(20-30%)에 대한 세액공제를 요구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DCFP(Day Care Food Program)를 통해 저소득가정에 봉사하는 센터와 가정탁아소에 음식 지원을 한다. 이 프로그램은 보조를 받는 프로그램이 주에 규제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 이는 가정탁아소를 규제받는 탁아시장에 결합시키기 위한 주요한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

탁아지원이 임금에 의해 매우 총화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보조금과 다른 형태는 다른 소득수준의 계층에 있는 가정에게 제공된다. 헤드스타트, SSBG, AFDCdisregard, DCFP 등은 저소득가정에 맞춰져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조세의무를 가지는 충분히 버는 그런 가난하지 않는 가정들의 탁아비용을 원조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1986년에는 조세이익의 70%가 연소득 25,000\$ 이상 버는 가정에게로 돌아갔다.

1980년 이래 가난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연방기금은 가치면에서 극적이게도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SSBG기금의 경우 현재는 1975년 기금수준의 50%정도에 미치고 있으며 물가인상을 감안한 1981년 수준의 75%정도이다. 반대로 세액공제에 대한 연방의 지출은 1981년 12억\$의 세배도 넘는, 1986년 34억\$, 90년 44억\$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가난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가난하지 않는 가정들에 대한 지원으로 근본적으로 주요한 이동이 있게 된 것이다.

<개별 주들의 탁아지원>

매우 소수의 주들만이 탁아영역에서 지도를 한다. 대신에 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주 차원의 관련기관들이 상징적으로 연방프로그램을 수행하며, 일반적으로 주기금을 탁아지원에 쓰기는 하지만 이는 오직 인가를 받은 탁아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다. 성장이나 주의깊은 계획보다는 오히려 유지가 규범이다.

탁아에 쓰인 50개주의 자금에 대한 국가적 데이터가 없다. 단지 일관된 정보는 SSBG의 연방예산삭감에 대한 주의 반응과 관계있다. 몇몇 주들은 그들이 탁아기금을 올렸다. 반면에 다른 주들은 동결시키거나 삭감하였다. 예를 들면, 35개주들은 1981년 보다 1985년에 SSBG를 줄였고, 33개의 주들은 탁아기준을 하향조정하였으며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직원수를 줄였다. 20개주에서는 탁아수당에 적합한 자격을 얻기 위하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AFDC의 엄마들을 어렵게 만들었다.

결과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탁아지원의 효과성이 주마다 불균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메사추세츠나 캘리포니아와 같은 몇몇 주들은 그들의 탁아기금을 확장했고, 창의적

인 출신수범으로 사업에 착수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와 텍사스와 같이 재정상태가 미약하고 비교적 사회복지에 대한 진보적인 견해가 부족한 몇몇의 다른 주들은 물질적으로 그들의 탁아소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있다.

<지방의 탁아지원>

주수준에서의 탁아서비스의 다양성은 지방수준에서는 훨씬 더 다양하게 매워진다. 다시, 정부는 보다 단편적이고 매우 크게 지방의 계획(지방이 갖고 있는 相)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相)은 디트로이트처럼 매우 제한된 자원만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하면 근래에 혁신적인 계획들을 시작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따위의 도시들에서와 같이 매우 다르다.

지역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들 중 하나는 '자원 및 위탁프로그램'(resource and referral program)의 출현이다. 1970년대에 대동한 지역사회 탁아서비스를 함께 조정하는 연방모델 위에 세워졌던 그러한 프로그램들은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탁아 프로그램들과 탁아소를 찾는 부모들 사이에서 중개자로서 역할하였다. 그들은 또한 나라의 몇몇 부분에 탁아소를 위한 하부구조를 제공하였다. 탁아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에 덧붙여 R&R 프로그램들은 교사훈련이나 장난감대여도서관, 욕구평가, DCFP와 같은 정부프로그램의 주창과 운영과 같은 지역사회서비스들을 조정하고 있다. 그들의 자금은 정부와 기업과 재단과 자선원조의 혼합으로부터 나온다. 많은 시골지역에서와 같이, 이러한 원조가 이용될 수 없는 곳에서는 R&R 서비스들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큰 도시지역에서는 R&R이 복잡하고 혼란스런 탁아제도라는 맥락에서 볼 때 중요한 조정자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모임과 모임

어린이에게 자연을 돌려주기 위한 교사모임(밖으로 나가놀자)

기계소리에 익숙하고, 인공적인 놀이감에 익숙한 우리 아이들에게 흙을 밟고, 구름과 바람을 느끼게 해주자는 취지에 만들어진 모임. [밖으로 나가놀자].

놀이터가 흔치않고, 바깥놀이시설이 없는 경우가 허다한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함께 모여서 연구할 사람은 있습니다.

4월 모임은 4월 7일 오후 6시, 22일 오후 3시에 지탁연 사무실에서 할 예정.

연락처 - 모임장 전경숙(웅기중기어린이집) ☎ 0331)294-3877

총무 및 서기 김랑희(해송아기동지) ☎ 02)762-9201

■ 기획 2.

봄철 어린이집 식단

작성 오경민 / 영양사

푸릇푸릇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3월.

지면에서 아른아른하게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처럼 아이들의 표정도 피어오름을 느끼게 된다.

영양사 오경민의 도움으로 봄철 어린이집 식단을 작성해보았다.

냄이국 한 그릇에 겨우내 잊고 있던 우리의 입맛도 피어나지 않을까.

10-12개월 영아 이유식 식단

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으깬 감자 감자20g 당근10g 달걀노른자1개 우유2Ts 기름1ts 소금	달걀죽 쌀20g 달걀노른자1개 참기름½ts 물1컵 소금 조금	콩죽 쌀20g 현미10g 물1½컵 소금 조금	장국죽 쌀20g 쇠고기10g 포도버섯10g 참기름1ts 물1컵 소금, 간장 조금	멸치죽 쌀20g 멸치5g 참기름½ts 물1컵	달걀국과 밥 밥70g 달걀10g 멸치3g
2주	달걀두부찜 달걀 두부20g 우유3Ts 소금 조금	쇠고기무우 국과 밥 밥70g 쇠고기10g 무우20g 참기름3g	멸치죽 쌀20g 멸치5g 참기름½ts 물1컵 소금 조금	감자죽 쌀20g 감자20g 참기름½ts 물1컵 소금 조금	치즈죽 밥50g 치즈5g 물½컵	복어국과 밥 밥70g 복어채5g 달걀10g 참기름1g
3주	미역국과 밥 밥70g 두부20g 우유3Ts 참기름3g	아재죽 쌀20g 당근10g 시금치10g 호박10g 참기름3g 물1컵, 소금	장국죽 쌀20g 쇠고기10g 포도버섯10g 참기름1ts 물1컵 소금, 간장	아재달걀말이 달걀½개 당근10g 양파10g 식용유5g(1ts) 소금 조금	편죽 식빵1쪽 우유½컵	으깬 감자 감자20g 당근10g 달걀노른자1개 우유2Ts 식용유1ts 소금
4주	달걀죽 쌀20g 달걀노른자1개 참기름½ts 물1컵 소금 조금	다진고기 넣은 아재죽 쌀20g 쇠고기10g 애호박10g 당근10g 된장½ts 참기름1ts 물1½컵	국수장국 삶은 국수 ½공기 달걀10g 멸치3g 오이10g 당근10g	쇠고기무우 국과 밥 밥70g 쇠고기10g 무우20g 참기름3g	현죽과 생선전 쌀20g 동태살30g 밀가루5g 달걀10g 기름5g	프렌치토스트 식빵1쪽 달걀10g 우유2Ts 식용유5g

12~36개월 유아 봄철 식단¹⁾

주	월	화	수	목	금	토
1주	오전간식	잣죽	달걀죽	콩죽	장국죽	요플레
	열량 단백질	99kcal 1.3g	127kcal 5.3g	106kcal 4.1g	157.5kcal 6.5g	110kcal
	점심	밥 김치죽 깍두기 아재달걀말이 콩나물	보리밥 미역국 생선묵조림 배추김치 젓갈찌	밥 냉미국 감자볶음 참치원자전	장국수 깍두기 콩조림	연두콩밥 두부원장국 배추김치 감자조림 무우생채
	열량 단백질	362kcal 13.1g	263kcal 12.7g	410kcal 16.4g	303kcal 12.63g	292kcal 16.3g
오후간식	떡볶이 우유	참쌀떡단 (2개) 식혜(½컵) 말기	편감지 (大½개) 쥬스 (½컵)	과일샐러드	김치전	편편(1쪽)
	열량 단백질	233kcal 10.2g	181kcal 3.5g	100kcal 1g	120kcal	114kcal 1.4g
2주	오전간식	현죽	잣죽	아쿠르트	감자죽	우유(1컵)
	열량 단백질	67kcal 1.3g	99kcal 1.3g	45kcal	104kcal 1.58g	125kcal 6g
	점심	수수밥 콩나물국 배추김치 생달걀볶음 시금치나물	밥 쇠고기무우국 배추김치 감자볶음 두부조림	비빔밥 살피장국 단무지무침	보리밥 시금치원장국 깍두기 오징어볶음 숙주나물	콩밥 달걀국 배추김치 멸치감자볶음 젓갈찌
	열량 단백질	342.7kcal 16.8g	328kcal 10.09g	300kcal 11.17g	333kcal 13.1g	344kcal 15.48g
오후간식	샌드위치 (1쪽) 쥬스(½컵)	삶은달걀 (1개) 토마토 (½개)	링도우넷 (1개) 우유(1컵)	편편(1쪽) 쥬스(½컵)	모아김밥	떡볶이 쥬스(½컵)
	열량 단백질	220kcal 4.23g	108kcal 7.47g	250kcal 6g	165kcal 2.02g	81kcal 2.3g

1) 만3세 이상 아동의 경우 필요영양이 12~36개월 아동과 동일하므로 밥 한주걱 정도면 부족한 열량이 보충된다.

주	예	월	화	수	목	금	토
3주	오전간식	우유(1컵)	아채죽	요구르트	우유(1컵)	땅콩죽	요플레
	열량	125kcal	104kcal	45kcal	125kcal	90kcal	110kcal
	단백질	6g	2.2g		6g	1.3g	
	점심	밥 미역국 배추김치 오징어채볶음 감자볶음	볶음밥 오뎅국 깍두기	보리밥 김치콩나물국 배추김치 복어조림 오이도라지 생채	짜장밥 우유국 배추김치 연두부	밥 두부김치국 배추김치 달걀조림 오이부추무침	보리밥 김치국 배추김치 콩조림 뽕어포구이
	열량	327kcal	327kcal	275kcal	292kcal	293kcal	307kcal
	단백질	10.59g	14.54g	14.0g	10.48g	13.42g	14.62g
4주	오후간식	감자전	과일샐러드	부추전	프렌치도스트	햇케익	삶은달걀 (1개) 쥬스(1컵)
	열량	114kcal	120kcal	223kcal	178kcal	178kcal	183kcal
	단백질	1.4g		4.5g	4.3g	2.6g	7.47g
	오전간식	달걀죽	우유(1컵)	요플레	우유(1컵)	현죽	요구르트
	열량	127kcal	125kcal	110kcal	125kcal	67kcal	45kcal
	단백질	5.3g	6g		6g	1.3g	
5주	점심	밥 콩나물국 깍두기 연두부 오뎅볶음	원두콩밥 복어국 배추김치 돼지고기장 조림 무우생채	국수장국 배추김치	밥 쇠고기무우국 배추김치 매취알조림 숙주나물	참치김치볶음 달걀국 깍두기	보리밥 두부원장국 배추김치 멸치볶음 아채달걀말이
	열량	294kcal	279kcal	239.7kcal	332kcal	329kcal	355.7kcal
	단백질	12.3g	15.4g	8.98g	12.7g	11.48g	15.5g
	오후간식	떡볶이 쥬스(½컵)	포마김밥 바나나 (½개)	참치샌드위치 우유(½컵)	썬감자 (大½개) 식혜 (½컵)	부추전	참쌀경단 쥬스(1컵)
	열량	158kcal	131kcal	265kcal	151kcal	223kcal	155kcal
	단백질	4.2g	2.3g	9.7g	3.4g	4.5g	1.1g

<어떻게 계산할까>

- * 감자 大1개 = 140g
 - * 식빵 1쪽 = 35g
 - * 쌀밥 ½공기 = 70g
 - * 쇠고기 탁구공 크기, 로스용 1장 = 40g
 - * 달걀 大1개 = 50g
 - * 치즈 1.5장 = 30g
 - * 두부 1모 = 400g
 - * 당근 중간크기 1개 = 100g
 - * 무우 직경10cm×1.5cm두께 = 100g
 - * 양파 중간크기 ½개 = 50g
 - * 건미역 6cm×13cm크기 한장 = 100g
 - * 쌀 3Ts = 30g
 - * 삶은 국수 ½공기 = 90g
 - * 밀가루 5Ts = 30g
 - * 동태 중간크기 1토막 = 100g
 - * 콩 2Ts(불려서 ¼컵) = 20g
 - * 멸치 ¼컵 = 40g
 - * 복어채 다듬은 것 1마리 = 80g
 - * 표고버섯 지름 5cm 10개 = 50g
 - * 호박 큰 것 ½개(작은 것 1개) = 100g
 - * 시금치 익혀서 ½컵 = 70g
- ※ 불린 미역 큰접시로 소복이 하나.

모임과 모임

통짜원하는 교사모임(그림책 소모임)

3월 17일 오후6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교사들이 지탁연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공주병에 빠진 영희랑, 로봇 그림책만 찾는 철수에게 좋은 그림책과 좋은 옛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교사들 모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림책을 알아볼 수 있는 눈 키우기, 전래동화 찾아내기, 어떻게 들려줄까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모든 어린이집의 도서를 좋은 책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아무진 꿈을 꾸는 사람들의 모임.

4월모임은 8일 10시, 20일 6시에 지탁연 사무실에서 갖습니다. 함께 할 이들을 찾습니다.

연락처 - 모임장 고영미(진달래동산) ☎ 0345)495-3962

총무 및 서기 조용란(개나리동산) ☎ 02) 469-1325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동화작가 정승각 선생님택을 다녀와서

동네 환경 공해의 주범...?

변미양 / 편집부, 본 회 재정감사

꽤 먼길을 온 것 같았다.

분당 정자동 한솔아파트. 숲처럼 둘러친 아파트들의 주변 경관이 낯설어 주위를 휘휘 둘러 보는데 마침 정승각 선생님이 걸어오고 계셨다. 더 해매일 이유가 없어진 편안한 마음으로 집주인의 뒤를 따라 곧 현관문에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다소곳히 고운 부인과 수줍은 듯한 두 아드님이, 그리 넓지 않은 집이지만 넉넉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오늘의 주인공 정승각 선생님. 그 80년대부터의 꾸준한 벽화작업과 그림책 출판활동으로 심심찮게 우리의 화제에 오르며 꽤 낯익어진 이름이다.

「장난꾸러기 도깨비」, 「눈먼 곰과 다람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까막나라에서 온 삼사리」... 토속적인 목판으로 전해지는, 조금은 투박하면서도 정겹고, 잊고 있던 우리 냄새가 나는 정 선생님의 작품들은 우리 것에 목말라 있던 어린이 도서계에 작은 파문을 던져 주었다. 벌써부터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에서는 정승각 선생님의 성함을 거론해 오던 중이었다. 그러다 오늘에서야 직접 찾아뵙고 그간 지내시는 이야기며, 그림책 속에 그려지는 작품에 대한 일정과 작가의 눈에 비춰지는 아이들에 대한 애정을 들어보게 되었다.

아무 준비없이 찾아온 손님이었지만 우리에게 대한 대접은 극진하셨다. 안내된 방에 앉자마자 부인께서는 향내가 은근히 피어나는 찻잔을 세 개 담아내오셨다. 그런데 보자하니 우리 편으로는 뚜껑까지 쥔 거친 근사한 전통 찻잔을 내미시고 정작 남군님 편으로는 흔히 쓰는 것같은 잔을 주시는 것이다. 오는 손님에 대한 후한 인심에 감사했지만 조금은 송구스러워지는 마음(?)이 들었다.

이 곳으로 이사온 지 얼마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선생님은 한 눈에도 알아차릴 수 있는 식구들을 소개하셨다. 두 살 터울이신 부인 김용녀씨, 18개월 된 아들 하람이와 그의 형 하준이. 두 형제의 이름은 '하느님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하신다. 소개

에서부터 이 집안의 정신적 흐름을 간파할 수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분당 신도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짚으며 우리의 이야기는 펼쳐졌다. 벼루에 먹을 갈듯 썩썩 풀여가는 선생님의 말씀은 순서없이 다 들어지지 않은 듯 했지만 정겨운 음성으로 듣는 우리를 편안하게 했다.



중앙대 서양학과 80학번이신 정승각 선생님은 학부때부터 동아리를 통한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해 오신 것 같다. 투철한 이론이나 계획된 운동에 서라기 보다 그리고 싶은 것을 보이고 느끼는 것에서부터 접근해 나간다는 선생님의 있는 그대로의 '철학(?)'이 생활에 배어 있는 것 같았는데, 격변하는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본의 아닌 의도로 비춰지기도 한 것 같다.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면 「민중미술가」로, 잘 알아 볼 수 없는 걸 그리면

「순수미술가」로 불리는 웃을 수만은 없는 시대의 부조리를 꼬집는 말씀을 들으며 언뜻, 가물과 더위에 시달리면서도 오천대 하던 쟁기절을 잠시 멈추고 막걸리 몇 잔 들이키는 우리네 농군같은 소박함이 느껴진다면 어떨까?

학부때는 동료들끼리 벽화작업에 열심이었지만 주위의 물 이해와 관(官)의 탄압으로 다 허물어지고 말았는데 어느 순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아이들)이 참여해 공동작업하는 벽화를 착상하고 실현하고자 애써 오셨다 한다. 그러던 중 87년 노미화 선생님(전교조 해직교사)과의 해후로 드디어 결실을 보시게 된다. 수재(水災)활동을 나선 학생들과 함께 역할을 담당해 하안동의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 그 벽화가 「우리 동네 물난리」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드라마같은 그 이야기의 2막이 열리려는 데 점심상이 들어왔다.

와아... "우리 집 점심은 청와대 오찬입니다."라는 우스개를 던지시는 선생님.

부인께서는 공교롭게(?) 점심 시간에 맞춰 온 우리들을 위해 손칼국수를 준비하신 것 같았다. 이런 본연의 맛은 실로 오랜만이 맛보는 것이라 감탄이 절로 나왔다. 톰캥하게 썰어넣은 감자와 웃기, 정갈하게 마련된 간장 종지와 양념장. 요즘도 청와대에서는 칼국수를 대접하는지 몰라도 푸짐한 상이었다.

국수가락 따라가듯 이어지는 선생님 말씀에 입으로는 먹기에 열심이고, 눈빛은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바쁘는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 젓가락의 국수가락은



■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정승각 선생님이 아끼시는 작품중의
하나라는 것을 거실의 액자에 걸린
원화로 알 수 있었다.

조금씩 굵어지고 있었다.

부인과는 90년 5월 결혼하셨다고 한다. 선 보신지 몇 달만에 고속으로 치루신 걸 보니 그 후 부인의 내조를 짐작할 만한데 신혼 초 마침 「울썰이그림책」으로 잘 알려진 「보리출판사」의 「장난꾸러기 도깨비」와 「눈먼 곰과 다람쥐」를 제작하시게 되었다고 한다. 그간 선생님이 표방하는 독특한 표현과 구상의 작품을 접목시키는 현장을 찾기가 어려워 고심하고 있던 중 윤구병 선생님(「보리기획」, 운영주)을 만나게 되고, 하고 싶은 데로 그려보라는 과감한 제의와 함께 작품을 하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고 한다.

그후 새롭고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작가의 성실한 작품 탐구와 노력이 담긴 작품을 인정받게 되면서 점점 더 활발한 작품활동의 장이 마련되었다. 전통과 토착 민속을 조화시킨 작품의 구상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출판계나 작업 환경의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 같았다. 서구적인 화풍에 길들여진 천편일률적인 기획과 얇은 독자층, 또 작가의 고유 영역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는 풍토 등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되었다. 작가가 작품에 기울이는 노력과 수고가 얼마인지 토로하는 선생님의 목소리는 안스럽게까지 들렸다.

하지만 이런 출판활동 못지 않게 선생님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벽화작업인 듯 했다. 지금은 부천에 남아 있는 것이 고작이지만 그간 해온 벽화활동에 담긴 고충과 공동 작업에서 벌어졌던 일화들을 들려주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시고픈 보람같은 것이 느껴졌다. 획일화된 색채, 정형화된 도시 속에 어느새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이웃들의 몸과 정신,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력마저 고정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

오히려 동네의 환경을 파괴한다고,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왜 쓸데 없이 귀찮은 일을 만드는가…….

어른들의 별난 생각들은 때로 심한 좌절을 겪게도 하지만 관청 문턱이 닳도

록 드나드는 번거로움과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으로 결국은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후미진 동네의 회색 벽에 찬란한 물감으로 옷을 입히고 그것을 보며 눈뜨게 되는 어른과 아이의 자유로운 세상. 거창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의 살아있는 숨결로 그 작업은 뒷바침되는 것 같았다.

올 한해 큰 소망이 다름 아닌 벽화 작업을 하는 과정의 이야기와 그림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을 여름까지 펴내는 것이라고 녀즈시 건네시며, 아울러 전래 동화를 개작하여 몇 권의 연작을 낼 계획이라고 하신다.

일러스트레이션(illustration)이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야 한다!”는 제일 기본적인 자세로 옛부터 목판화에 담겨져 온 우리 민족정서를 현대에 맞게 잘 융합하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정승각 선생님의 꿈, 아마도 그분만의 꿈은 아니리라. 누군가 “안정된 생활과 성실한 자세”가 작가를 뒷바침하는 기본이라고 했다는 선생님의 말씀처럼 창의력 있는 작가의 능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이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어느새 시간은 예정된 시각을 훨씬 넘어서고 있었다. 다음 일정도 있는지라 우리는 일어설 채비를 했다. 도서관에 들려야겠다며 선생님은 함께 대문을 나섰고 버스 타는 곳으로 안내를 받으며 우리는 길을 재촉했다. 바쁜 걸음 속에서도 작품에 대한 다양한 구상이 엮어졌는데 아마도 선생님의 이 모습 뒤에는 말없이 가정을 이끌어 주는 아내와 자녀들이 더할 수 없는 힘이 되리라.

우리들의 무관심과 물이 해 속에 겪어야 하는 작가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지 모른다. 하지만 「황야의 무법자」 음악을 틀어달라는 하준이, 하람이와 함께 어울려 주는 아빠,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구별하지 않는 마음을 조각할 삼아 나무판을 새겨갈 우리의 아빠 정승각 선생님의 즐기 찬 작품은 계속되리라 믿는다.



좋은 그림책 소개

● 나랑 같이 놀자

마리 홀 에츠 글, 그림 / 양은영 옮김 / 네버랜드 / 5,000원

작은 여자아이가 들뜬으로 나와 모든 동물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나하고 같이 놀래?' 하고 다가가지만 메뚜기도, 개구리도, 거북이도, 만나는 동물마다 도망가버린다. 실망한 여자아이는 연못가에 가만히 앉아 있다. 도망갔던 메뚜기, 개구리, 다람쥐들이 하나씩 다시 나타나 친구가 된다. '아이 좋아라', '모두들 나랑 같이 놀아주니까'

마지막장 아이의 환한 웃음만큼 읽는 이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림책이다. 아이의 심리 변화와 느낌이 생생하게 전달되어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연한 노란빛의 색 하나로 처리된 요란하지 않은 색채와, 연필로 그린 듯한 선이 글의 느낌을 더욱 잘 반영한 듯하다. 읽고 난 이후 빙그레 미소짓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그림책이다. (3,4세 이상)



좋은 그림책 소개

● 월월 날아간다

권정생 글 / 김용철 그림 / 국민서관 / 6,000원

어느 산골 외딴 집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단 둘이 살고 있었다. 무척이나 이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의 부탁에 할아버지는 배 한필을 가지고 이야기 한 자리를 사러 장에 나가지만, 이야기 한자리에 배를 사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 수 없이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온다. 힘없이 돌아오는 길에 한 농부가 이야기 한자리를 주고는 배를 사가고,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할머니에게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때 마침 도둑이 들어오는데...

전래동화를 그림책으로 만든 책이다. 우리의 민족정서와 재미가 흠뻑 담긴 이 그림책은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푸근한 모습을 그림으로 잘 나타냈으며, 전래동화가 주는 맛을 잘 전달해냈다. 글은 막힘이 없이 술술 읽을 수 있어 그냥 구연을 해주어도 좋을 정도이다.

할아버지에게 판 농부의 즉흥이야기를 중얼거리는 아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린 아이들도 선생님이 들려주면 무척 좋아하겠다. (5,6세용)



■ 지상강연 1.

‘아동의 권리조약’, 그 성립에 이르는 역사

인권운동사랑방

1989년 11월 20일, UN총회에서 채택된 ‘아동의 권리조약’은 1990년 9월 2일 비준국이 20개국을 넘어 발효하게 되었다. 이 획기적인 조약의 출발점은 1924년에 국제연맹이 채택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1. ‘아동’을 바라보는 과거의 시각

고대·중세 이후 유럽에 있어서 아동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인격을 갖는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잘해야 ‘미완성인 어른’ 정도로 파악되는 것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몇몇 예외는 있어도 일반적으로 아동은 ‘교육’의 대상이라기 보다 ‘길들이기’의 대상이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미완성인 어른’이라는 아동관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기 사상운동의 선봉이었던 에라스무스는 그 당시의 체벌이 판을 치는 비인도적인 학교 교육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그는 어린이도 어른과 똑같이 자유로운 인간임을 강조하면서 그 존엄에 걸맞게 처우할 것을 주장했다.

이리하여 르네상스 시대 이래 사람들은 적어도 사상적으로만은 ‘인간으로서의 아동’의 권리와 자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말하는 ‘아동’은 어느 특성의 사회계층에 속하는 ‘아동’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모든 아동이 권리와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동이 신분이나 계층에 관계없이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18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장 자크 루소가 가장 명확하게 전개했다. 루소는 “아동의 발견자”라고 평가된다.

그는 교육소설 <에밀>의 머리말에서 아동의 독자성, 아동으로서의 완성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즉 ‘인간으로서의 아동’에 고유의 가치나 인권을 인정하고자 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주장이 나온 셈이다.

루소의 교육사상은 그후 페스탈로치나 플레베르 등 근대 교육사상가들에 의하여 심화·발전되어왔다. 그리하여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친 ‘신교육운동’은 ‘아동중심의 교육’등 주장을 통해 학습주체로서의 아동의 인간성 존중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이하 ‘제네바선언’)

1914년에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갔으며 특히 아동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는 심각했다. 이 전쟁이 끝난 후 두번 다시 이런 참화를 일으키는 일이 없이 평화적 사회의 지속과 발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의 결의로써 1920년 국제연맹이 결성되었다.

국제연맹은 1924년 9월 26일 제5차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은 전문에서 “모든 나라의 남녀는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짐을 인정하고 인종·국적 또는 신조에 관한 일체의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아래 사항을 보장할 것을 선언하며 또한 자신의 의무로서 수락한다.”라고 그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다.

본문은 5개조로 이루어진다. 내용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제1조.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한 수단을 물질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주어져야 한다.

제2조. 아동이 기아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지체이나 비행에 빠진 아동은 그 회복과 경생을 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집 없는 아동에게는 주거가 주어져야 한다.

제3조. 아동은 재난시 가장 먼저 구제되어야 한다.

제4조. 아동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5조. 아동은 그 능력을 널리 인류동포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길러져야 한다.

이 선언에 “아동에게 최선의 것이 주어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이듬해 ‘아동의 권리선언(1959)’에 계승되고 결국 ‘아동의 권리조약(1989년)’에까지 계승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제네바선언’에는 제2조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보기 보다는 차라리 일반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보장하려는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즉 이 선언은 아동의 생존을 위한 최저보장기준의 확보를 목적으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제네바선언’의 특징이다.

‘제네바선언’의 역사적 의미는 크다. 아동의 권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국제적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3. '세계인권선언'

제1차세계대전과 같은 인류의 큰 죄가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하여 결성된 국제연맹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했다. 20년도 못되어 인류는 제2차세계대전을 일으켜 1300만명이나 되는 아동이 이 전쟁으로 죽어갔다.

인류를 불행의 밑바닥까지 물고 갔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유럽에는 영원한 평화를 확보하고 사람들을 두번 다시 독재나 압제의 불행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는 새로운 정치의식이 힘을 얻고 있었다. 그 하나의 결과가 'UN헌장(1945년 6월 26일 서명, 같은 해 10월 24일 발효)'이다. 이 헌장에 의하여 국제연합(UN)이 창설된 것이다. 국제연합 가맹국들은 '평화'와 '인권'을 그 무엇보다도 존중할 것을 다시 확인했다.

창설된 바로 이듬해인 1946년 UN은 그 경제사회이사회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4년의 '제네바선언'이 그랬듯이 전세계 사람들이 튼튼히 연대하기 위한 중심핵으로서 '아동의 권리선언'을 생각했던 것이다. 이 요청을 받아 경제사회이사회는 '제네바선언'을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 '아동의 권리선언' 작업에 앞서서 경제사회이사회는 해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있었다. '세계인권선언' 기초작업이 바로 그것이었다.

UN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는 그 산하에 인권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인권위원회는 탄생과 동시에 '국제인권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다. 기본적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경과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인권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인권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가지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중 선언 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과 본문 30개조로 이루어진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선언에는 자유평등, 차별금지, 생명·신체의 안전, 노예·고역의 금지, 고문·잔인한 처우와 형벌 금지,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권리, 재판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이전·거주의 자유, 재산권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등등 시민적·정치적 권리가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서 이들과 함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권, 생활보호, 어머니와 아이 보호, 교육권, 문화적 생활을 할 권리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세계인권선언' 속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항은 두개이다. 즉

첫째로 제25조 「생활보장」 1항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에서 충분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전제하면서 "어머니와 아이는 특별한 보호 및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모든 아동은 적출이든 아니든 같은 사회보장을 받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로 제26조 「교육의 권리」 1항은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교육은 적어도 초등 및 기초적 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서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아울러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교육목적을 밝히면서 3항에서는 "부모는 아동에게 줄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적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한다.

'세계인권선언'은 '아동의 권리선언'의 전제이자 기초이다.

4. '아동의 권리선언'

(1) 성립과정

1946년부터 시작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헌장의 작성작업은 실로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 '아동의 권리선언'이 성립함으로써 1959년 11월 20일에 끝난다. 성립에 이르는 길고도 복잡한 과정의 연대기는 대략 아래와 같다.

- 1947년 10월 제2차 UN총회 사회위원회(제3위원회)에서 헌장 성문화를 위한 기획시작.
- 1948년 '제네바선언'의 단순한 개정이 아니라 새로운 헌장 작성을 결정. 사회위원회가 사무총장에게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준비를 요청.
- 1950년 사무총장, 사회위원회에 전문 및 7개 조항으로 된 선언안을 제출. 이 전문에서는 '제네바선언'의 원칙인 "인류는 아동에게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는 언명 외에 "아동은 법률상의 미성년인 까닭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아동이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된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향유하면서 성장할 수 있기 위하여 '아동의 권리선언'을 공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는 분명히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 사회위원회는 이 사무총장안을 심의, 경제사회이사회에 널 선언안을 작성했다. 전문과 10개조항으로 된 이 안은 명칭을 '헌장'이 아니라 '아동의 권리선언'으로 정했으며, 특히 전문에서는 "아동에게 불가결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고 하면서 "아동이 행복한 아동기를 보낼" 목적을 위하여 인권으로서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런 점에서 아동은 구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제네바선언'과 큰 차이가 난다. 이 안은 1950년에 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되었다.
- 1950년 경제사회이사회는 위의 안을 심의한 결과 산하에 있는 인권위원회로 보내고 의견을 구하려 했으나 인권위원회는 이를 1957년까지 미루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인권위원회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화하기 위한 초안 작성작업에 전념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여러 나라가 '세계인권선언' 외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따로 냄으로써 '세계인권선언'의 권위가 멀어지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 1957년 제13차 인권위원회에서 위 초안에 대한 실질적 심의가 처음으로 있었다. 이 시점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인권규약'은 아동이라는 특수한 집단을 보호하기에는 불충분하며 또한 아동은 법의 주체이면서도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선언'의 제정은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러나라 사이에 공유되고 있었다. 다만 이 문서를 단순한 선언으로 할지 조약으로 할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폴란드·우크라이나 등은 권리의 열거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 보장을 의무화하기 위하여 조약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하여 영국·프랑스·아르헨티나 등은 각국의 법적, 사회적 현실로 보아 조약화는 무리라는 주장을 했다.

- 결국 인권위원회는 각국의 의견을 모아 '선언'으로 방향을 잡고 본격적인 초안 작성 작업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도 다시 논쟁이 있었는데, 미국·영국 등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이행조치규정을 포함하지 않는 일반원칙만으로 된 간결한 선언으로 할 것을 주장한 데 대해 소련·폴란드 등은 일반적인 원칙에 머물지 않고 권리내용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실시조치를 정하고 아울러 권리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약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조건에서 폴란드가 제출한 두가지 수정안, 즉 "각국은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함과 동시에 아동의 성장을 가능케 하는 기회 및 편의를 법률로써 부여해야 한다."는 모두 채택되었다. 이것은 아동의 사회권적 권리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정이다.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선언' 초안 작성단계에서 성립까지 한결같이 조약화를 주장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아동의 권리선언'을 알찬 것으로 만드는데 기여했다. 나중에 폴란드는 '아동의 권리조약'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간여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UN인권위원회에서 마련된 '아동의 권리선언(안)'은 1959년 UN 제14차 총회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던 것이다.

(2) '아동의 권리선언'의 내용

전문

- * 기본적인 인권의 중요성과 인간의 존엄 및 가치에 관한 신념의 중요성을 강조
- * 모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갖는다는 원칙 재확인
- * 아동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특별한 법률적 보호를 포함하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
- * 인류가 아동에 대하여 최선의 것을 줄 의무를 진다.
- * "아동이 행복한 삶을 보내고 또한 자신과 사회의 복리를 위하여" 여러 권리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이 선언을 공포하고 부모, 개인인 남녀, 민간단체, 지방행정기관 그리고 정부에 대하여 아동의 권리의 인식과 권리의 준수를 위하여 입법 기타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 1조 : 모든 아동이 어떠한 차별도 없이 평등하게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를 갖는다.
- 2조 : 아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신체적·지능적·도덕적·정신적·사회적으로 발달하기 위한 기회와 편의를 부여받아야 한다. 그 경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최고의 고려가 배워져야 한다.
- 3조 : 성과 이름, 그리고 국적을 가질 권리
- 4조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 5조 : 신체·정신·사회적 장애가 있는 아동은 특별히 치료·교육·보호를 받는다.
- 6조 : 아동은 인격의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애정과 이해를 가능한 한 그 부모로부터 가정 내에서 받아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애정과 도덕적, 물질적 보장이 있

는 환경에서 키워져야 한다. 가정이 없는 아동에게는 특별한 양호가 주어져야 한다.

- 7조 : 교육을 받을 권리
- 8조 : 아동은 모든 상황에 있어서 최초로 보호와 구제를 받아야 한다.
- 9조 : 아동은 방임, 착취, 학대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매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 10조 : 모든 형태의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관행으로부터 보호됨과 동시에 이해·관용·우애·평화·사해동포의 정신 아래 그리고 그 힘과 재능을 인류를 위하여 바친다는 의식 아래 키워져야 한다.

'제네바선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 선언은 '제네바선언'을 한층 더 심화시키고 풍부하게 한 '아동의 권리선언'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아동을 권리나 자유의 주체로서 파악하려는 입장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언은 의심의 여지없이 의의 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인권선언'처럼 '아동의 권리선언'도 매우 이상적인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가지면서도 그 자체로서는 법적 규제력을 결함으로써 아동인권의 실질적 실현과 보호에 결정적 기여를 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선언'은 어디까지나 '선언'에 지나지 않는다. 이리하여 '선언'의 내용을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5. '아동의 권리조약' 제정에의 발걸음

(1) '국제인권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을 이끈 것은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높이려는 움직임이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UN 발족과 함께 경제사회이사회에 의하여 설치된 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장전'의 작성작업에 들어가 있었다. 기본적인 인권의 무시와 국제적 침략행위의 결과가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불행을 가져왔다는 교훈을 딛고, 세계 각국의 경제적·사회적 협력과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결의 조건이라는 인식 아래 '인권장전'은 요구되고 있었다. 그 작성과정에서 '인권장전'은 선언, 조약, 실시수단의 세부분으로 나뉘게 되었으며 그 중 선언부분이 1948년 12월 10일에 '세계인권선언'으로서 채택되었다.

이 '세계인권선언'을 조약으로 만드는 작업과정에서 여러 나라들,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의 입장 차이 때문에 하나의 조약으로 만들기가 어려워 권리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두개의 조약을 만들게 되었다. 하나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이다. 그리고 B규약에 관해서는 별도로 사형폐지와 개인이 당한 인권침해를 직접 UN에 제소하는 절차와 이를 심사하기 위한 인권이사회(B규약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의정서가 만들어졌다.

이 세가지 조약은 모두 1966년 12월 16일 제21차 UN총회에서 채택되었고 A규약은

1976년 1월에, B규약과 선택의정서는 같은 해 3월에 각각 발효했다.

두가지 규약은 UN헌장, '세계인권선언' 등의 이념과 정신을 확인하는 거의 같은 내용의 전문을 가지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또한 제1부에서 인민의 자결권을 규정하고 제2부에서 규약에 담긴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 제약국이 저야 하는 노력과 의무,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남녀평등, 공공복지의 관점에서의 인권제한, 인권의 파괴 혹은 부당한 제한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두가지 규약은 제3부의 실체규정에서 각각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A규약은 노동권, 좋은 노동조건 확보권, 단결권, 생활수준 확보권, 교육권, 문화권 등이 규정되어 있다. B규약은 생존권, 고문 등 금지, 노예·강제노동 금지, 주거·이동·출국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의 보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에 AB규약에 가입했다.

(2) '국제 아동의 해'와 '아동의 권리선언'의 조약화 작업

UN은 '아동의 권리선언(1959년)' 20주년에 해당하는 1979년을 '국제 아동의 해'로 정하여 아동인권을 현실화시키려는 노력을 했다.

1978년 2월 7일 폴란드정부는 제34차 인권위원회에 대해 '아동의 권리선언'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이 안에 대하여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콜롬비아, 요르단, 세네갈, 시리아, 아랍공화국, 페루 등 7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3월 8일의 인권위원회 결의는 1959년 '아동의 권리선언' 전문을 거의 그대로 이어받은 것과 '선언'의 10개 조항에다 9개조의 실시조치조항을 더한 총 19개 조항으로 된 조약 원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을 제출케하여 가능하면 '국제 아동의 해'인 1979년에 조약으로서 채택한다는 것이었다. 1979년 3월까지 UN에 모아진 여러나라의 의견은 총 57건, 의견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하나는 이 조약 초안에 찬성하여 1979년에 조약화할 것을 주장하는 부류로서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나라들과 아프리카, 중남미 나라들이 이 그룹에 속했다. 다른 하나는 '선언'과 '조약'과의 성격 차이를 이유로 '아동의 권리선언'을 그대로 조약화하는데 반대하거나 '국제 아동의 해'를 계기로 진행중인 여러가지 연구성과를 기다린 후에 조약화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대세는 후자 쪽이었고 1979년 조약 채택에는 부정적이었다. 결국 1979년에 조약을 만든다는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다.

조약화를 위한 작업그룹은 1979년에 만들어졌고 의장에 폴란드의 아담 로파트카교수가 선출되었다. 그는 1989년 '아동의 권리조약' 채택 때까지 한결같이 조약 초안을 만드는 일에 지도적 역할을 했다.

1979년 10월 5일 폴란드는 전문과 28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조약 수정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같은 해 1월 16일부터 4일동안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바르샤바회의'(서유럽 11개국, 동유럽 8개국, UN관련기관 3단체)의 성명과 결의를

반영시켜 폴란드정부가 작성한 것이었다. 이 수정초안은 이후 해마다 열린 작업그룹 회의에서 '아동의 권리조약'을 만들어 나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 여기에 포함된 "국가는 필요한 가정예의 원조를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한다거나 "국가 및 부모는 그 아동이 자신의 행복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는 언제든지 그와 관련해서 상담을 받을 권리를 존중한다.(의견표명의 권리)"는 내용은 거의 그대로 '아동의 권리조약'에 반영되어 있다.

10년동안의 기나긴 조약화작업을 거쳐 전세계의 인권에 관한 모든 지혜를 결집시킨 결과물인 '아동의 권리조약'은 완성되었다. 1989년 11월 20일, 이 날은 아동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구가 살아있는 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아동의 권리선언' 채택 이후 30년이라는 세월,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채택 이후 실로 6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 사이에 '구제·보호받아야 할 아동'에서 '권리의 향유주체로서의 아동', 그리고 다시 '권리의 행사주체로서의 아동'으로 아동관은 빠른 속도로 비약적으로 변해왔던 것이다.

<예고>

다음호에는 아동권리조약의 전문과 해설을 실을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대 바랍니다.

모임과 모임

영아탁아 교사모임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영아를 위한 보육프로그램이 없는 현실에서 영아를 담당하는 교사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교류하고 좋은 대안교육을 만들고자 한다.

4월 모임은 1일 오후 4시, 어깨동무어린이집에서 있을 예정이다.

연락처 - 지탁연 교육부장 오운정 ☎ 02)275-8505~6

■ 지상강연 2.

지방자치시대와 교통정책

김은희 / 시민교통환경연구소 연구원

1994년도 우리나라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만여명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0만명이 부상당했다. 교통체증으로 손실되는 비용은 5조원이 넘는다. 이처럼 심각한 교통문제로 인해 대다수 시민들은 생활상의 교통중 1순위로 교통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심각한 교통 위기에 대해 정부가 취해온 자세는 지극히 미온적이었거나 단편적이었다. 그러다 최근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자동차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을 펴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정부의 교통정책은 연속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획일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에 따른 정책

교통문제는 모든 지역에 동시적용하는 정책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 각각의 지역마다 특성들이 다르고 또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저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교통문제는 각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고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가야 하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교통은 국가의 기간시설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로서, 지역사회의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용은 거대한 범위에 획일적인 정책에 의해서가 아니라 거시적인 목표하에서 각각의 구체적인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여기서 지방자치시대의 지방교통행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는 사회적 생활의 공간

도로는 차량의 통행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걷고 만나고 모이며 어린이들이 놀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하고 성장해 가는 중요한 공간이다. 그러나 차량의 과속통행과 무질서한 주차 등으로 인하여 주택가 도로의 고유기능은 점점 사라지고 보행자는 보도로, 길 가장자리로 밀려나면서 도로공간의 대부분은 차량들이 점령하게 되었다. 그나마 보도 위의 차량주차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공간은 더이상 없다는 상태에까지 와있다. 이와 같이 도로, 특히 주택가 도로까지 차량의 통행만이 강조되어온 결과 이제 모든 도로는 사고위험지역으로 되어버렸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80%가 집 앞에서 놀다가, 학교에 오고 가다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주택가 도로에는

어떠한 안전시설물도, 도로정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결국 최근 급속히 증가되는 차량 때문에 주거지역내에서 교통안전문제, 주차문제, 외부생활공간의 질적저하문제 등은 일상생활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것은 주택가 도로의 교통사고위험, 소음, 배기가스의 오염, 먼지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심각한 지역 교통문제의 해결은 사람을 위한 교통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람을 위한 교통정책은 우선, 보행자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관심과 정책에서부터 시작된다. 예를 들어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시설의 설치나 어린이 놀이터 주변 환경의 정비, 장애인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계단을 완만한 경사로로 바꾼다든지 하는 작지만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을 되살리는 교통정책

또 한 측면은 환경을 생각하는 교통정책이어야 한다. 자동차로 인한 공해는 이미 모든 주민들이 절감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안이다. 국가적·세계적인 고민거리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는 지역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모든 차량의 배기가스를 규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잘못해왔던 것들을 고치는 것은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얼마전 거주지 시의원의 홍보물을 받아본 적이 있었다. 그 내용중 하천의 복개가 매우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천은 도시민들에게는 유일한 휴식공간이

다. 산소를 공급해주고 콘크리트 숲을 벗어나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천이 오염되어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자동차 주차공간이 없거나, 차도를 확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복개되었다. 복개된 대부분의 용도는 주차장과 차도다. 그 결과 하천은 죽어가고 콘크리트로 인한 기온의 상승과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 피해만 급증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편리를 위해 보호해야 할 환경을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점도 주의깊게 생각해야 할 지점이다.

95년 6월 주민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구·시의원이 선출되면 지방자치체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행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자동차를 위한 교통정책이 계속 시행된다면 오히려 지역 교통문제는 더욱 악화되어갈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을 단순히 피해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그 역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될 것이다.

지역의 교통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삶의 공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계획이나 시설 개선 등 제반 조치들은 주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한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방안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사람과 환경을 중시하는 교통정책.'

그것에서 우린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작은 기획-자연과 어린이(1)

“경의선, 함경선 외를 달려볼래요!”

- ‘철도박물관’을 찾아서 -

전경숙 / 용기종기어린이집

뽕뽕 달리는 차들을 피해 벽과 담만을 보면서 걸어다니게 되는 우리 아이들. 벽이나 담이 아닌 나무나 새를 보여주고 싶어 종종 아이들과의 나들이를 계획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단체로 갈 수 있는 곳은 그리 넉넉치 않다. 『작은 기획』에서는 95년 한해 『자연과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아동들과 함께 걸었던 곳을 소개한다. 교사들이 사전정보를 알고 있다면 단순한 나들이에서 벗어나 교육적 효과들도 충분히 볼 수 있으리라 이거진다.

용기종기는 매년 4월 중순에서 10월말까지 매주 야외수업을 가는데 그중에 해마다 빼놓지 않고 가는 곳이 철도박물관이다.

놀이감중에도 유달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들에게는 그림책에 그려진 것이나 도로에서 보는 버스, 택시, 간간히 트럭, 멀리 여행할 때나 볼 수 있는 기차와 철도들이 ‘교통’과 관련된 경험의 전부일 것이다.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서 택한 것이 바로 철도박물관인데, 수원근교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학원, 유치원은 물론이고 가족나들이로도 많이 찾는다.

우선 실물기차를 마음껏 볼 수 있고, 비록 내부까지 모두 개방된 것은 아니지만 기차에 오르내리고 기차 바퀴를 만져보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고 기관사 흉내를 내는 것은 아이들에게 여간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도 박물관에 들어가면 가운데 우뚝 큰 건물에 각종 전시실이 있는데, 가마에서 현대 기차까지의 역사가 나오는 철도 역사실,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세계 철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의 철도실, 그외 철도 차량실, 전기·신호통신실, 운수운전실 등의 모형과 사진이 풍부히 있어서 지루함을 모르고 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도위에 경부선·중앙선 등의 남쪽 철도와 경의선·함경선 등의, 지금은 가지 못하게 된 북쪽의 철도까지 단추만 누르면 친구가 들어오면서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통일의 염원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전시관에는 모형파노라마를 운영하는데, 실물크기 87분의 1로 축소한 모형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 수도권 전철 등)가 주야간으로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는 광경은

아이들에게는 신남과 동시에 신비감까지 준다. 파노라마 운영시간, 함경열차 운영시간을 알아서 그것에 맞게 움직이면 효과적으로 빼놓지 않고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점심은 박물관 내부에서는 먹을 수 없고 옆의 넓은 풀밭에서 먹을 수 있으므로 돗자리를 깔고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위낙 많은 곳에서 오기 때문에 단체로 올 경우에는 이름표나 눈에 띄는 단체복을 입히는 것도 미아방지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가족동반으로 올 때는 전철을 타고 걸어와도 되겠지만 단체로 올 경우는 차를 대절해서 오는 것이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놀이기구가 있는 놀이공원은 입장료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시간이 난다면 교통이 편한 철도박물관에서 가족나들이든 어린이집 야외수업이든 보람(!)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철 · 도 · 박 · 물 · 관

소재/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1-4	관람시간/동절기 09:00-17:00(11/1-2월말)
문의전화/0343)56-3610(단체는 따로 전화)	여절기 09:00-18:00(3/1-10월말)
교통편/수원역 1호선 전철 북곡역 역차-도보10분	입장요금 운영/(동) 11:30, 15:30
(어린이들 그룹으로 약 20-30명)	(여) 11:30, 14:30, 16:30
관람료/일반 300원 열차(7-17세) 150원	모형파노라마/(동) 11:00, 14:00, 16:00
일반단체 200원 일반단체 100원	(여 15분 소요)(여) 11:00, 13:00, 15:00, 17:00
* 30명 이상 단체예약, 7세 미만은 무료	오전열차/매주 월요일 및 공휴일 다음날, 1/1-2월, 설, 추석연휴

■ 특집



편집부

3월 12일, 비온 뒤 내리쬐는 햇살이 무척이나 깨끗한 날씨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바로 이날,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는 3·8 세계여성의 날 87주년 기념 제11회 한국여성대회가 '남녀유권자 한마당'이라는 부제목으로 진행되었다.

행사가 시작되려면 아직 한시간도 더 있어야 하겠지만 이미 앞마당에는 리영애씨의 자수화를 비롯한 북한화가들의 작품들과 신영복님의 서화 등이 진열되어 있었다. 진열작품의 판매수익금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에서 지지하는 여성후보 지원금으로 쓰여진다고 했다. 대강당 바로 앞에서는 사진전과 서명작업등으로 각 단체별로 분주하고 다분히 소란스러운 가운데 의연하게(?) 길놀이를 진행하는 팀이 있었다. 바로 한국여성민우회 주부풍물패인 '단비'이다. 사람들의 소리와 주변의 소음에도 아랑곳없이 열심히 북을 치고 쇠를 두들기는 그들의 모습. 그래, 여성이 주인되어서 한표 찍어보자.

본행사의 시작.

단비의 길놀이가 무대의 맨처음을 빛내주었다. 흥겨운 우리 가락에, 아이와 남편의 뒷치닥거리에 지치던 우리 주부들이 한판 신나게 노는 것을 보니 보는 이들 역시 얼굴표정만으로라도 신나는 시간이었으리라.



그뒤로 회원단체들의 깃발 입장. 깃발을 든 기수와 대표가 함께 등장을 하자 여기저기에서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풍선을 흔들며 자기 단체의 입장을 환호하였다.

1,000여명의 관객들이 함께 한 이날 행사는 오숙희씨(여성학 강사, SBS '남자를 위하여' 진행)와 이제 막 미국유학길에서 돌아온 정한용(한국청년의전

화 준비위원장)씨의 공동사회로 진행되었고, 행사장에는 이효재 한국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등 30여명의 내빈이 참석하여 행사를 축하해주었다.

두 사회자의 개회선언 후 한명숙 여연 공동대표의 대회사가 이어졌다.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한명숙 공동대표는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의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고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키는 비율을 증대시키는 특별조치를 도입하고, 여성문제를 공식적인 정치마당에서 다루도록 하는데 함께 노력해 가자"라고 대회사에서 참석한 이들을 독려했다.

뒤이어 이세중 변호사(20% 지방의회여성참여 후원회장)는 격려사에서 "여성들의 지혜와 생활체험이 지방자치에 접목될 때 참다운 의미의 생활정치가 실현되리라 확신"한다며,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여성의 정치참여의 확대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남녀 유권자 한마당을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역사적 의미"라고 말을 마쳤다.

격려사가 끝나자 갑자기 무대뒤편에서 파란 조명이 흔들거리기 시작하더니 귀에 익은 반주와 함께 가수 박정운씨의 무대가 펼쳐졌다. 박정운씨는 자신의 노래 중 '이 순간을 영원히', '그대만을 위한 사랑'을 불렀으며, 관객들의 부탁으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면이라도 '오늘같은 밤이면'을 앵콜송으로 열창해주기도 하였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사라져가는 즈음에 남녀유권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해 의견을 말하는 [나도 한마디]시간.

대구여성회의 한 여성회원이 먼저 그 서막을 그 시간의 공백을 깨뜨렸다. '건강한 방송만 들기 시민모임'의 김태영씨는 이 코너에서 "여성표를 팔래비누 한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청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하였다.

67세의 한 할머니는 "자신이 어머니, 아내인 줄만 알았지, 여성(인간)인 줄은 몰랐다."고 말해 지난 우리 어머니들의 역사를 대변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출현.

대학원에 재학중이라고 밝힌 송규봉씨는, 남성의원들이 외유·향응에 놀아날 때 0.9%의 여러분은 담배자판기를 없애고, 쓰레기 소각장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였다고 그간의 여성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해서 많은 이들의 호응을 얻기도 하였는데, 여성의식할당제를 구걸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면 여성이 집단적으로 정치를 하면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로서 올해에는 꼭 여성의식 20%를 확보해야 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 선거에서 영등포구 의원후보로 출마했던 김민석씨의 어머니 김춘옥씨가 단장으로 있는 '겨레하나 합창단'이 '그날이 오면'과 '정치가 별건가 우리가 나서봐(개사곡)'을 들려준 뒤, 합창단의 등단으로 잠시 환해졌던 무대는 이내 다시 캄캄해지면서 한때 30대 셀러리맨들의 귀가시계로 알려졌던 [모래시계]의 주제가가 흘러나왔다.





여연이 지지하는 여성 후보들.

무대 중앙에 앉아있는 30대 중반의 해린과 친구 진숙, 그리고 새 보디가드, [미래시계]의 내용을 지자체 이야기로 각색한 [그래,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거야!]가 공연되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열연했던 연극배우 박해숙, 김진희씨와 오세준씨가 열연 해주었다.

이제 우리가 선정한 지역의회 후보자, 이름하여 지역살림의 참일꾼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14인의 여성후보와 이들을 외조(!)할 남편들의 각오를 들을 수 있었는데, 모두들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번 대회의 두번째 하이라이트는 바로 '여성노래' 발표일 것이다. 여연에서 양인자, 김희갑씨에게 의뢰하여 만들어진 「부엌에서 로마까지」를 가수 권성희씨가 나와서 열창을 하고 관객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었다. 빠른 템포로 흥겹게 부를 수 있는 노래다.

이미경 여연 상임공동대표의 '95 남녀 유권자 선언문 낭독으로 모든 프로그램은 막을 내리고 관객들은 「정치가 별건가 우리가 나서봐」를 함께 부르며 장내를 정리하였다.

한국여성대회 남녀유권자 한마당이 끝나고 난 지금, 이미경 대표가 선언문을 통해 주장하였듯이, 이제 남은 것은 여성들이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활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실천뿐이다.



■ 현장취재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총회

편집부

2월 24일(금) 오후 2시 기독교100주년기념회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민간·가정보육시설 원장들이 가득 메운 자리에서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이하 '전국 민보련')는 출범하였다.

참가한 지역별 인사를 시작으로 창립총회와 축하잔치(다과회)로 이어진 이날의 순서는 국민의례, 회원점명, 개회선언, 서기임명, 경과보고, 회칙승인, 임원선출 및 인사, 사업계획, 안건 및 토의, 광고, 폐회선언으로 이루어졌다.

준비위원장으로 이날 전체사회를 맡은 최현숙 지탁연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하나되는 일체감을 맛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각지에서 보낸 축전 소개 후 멀리 부산에서 부터 전국 민보련의 창립을 축하 위해 상경한 임재택 교수(부산 '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회장)의 축사가 있었다. 임재택 교수는 준비된 축사를 낭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만큼, 이 나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며 전국 민보련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한국의 보육사업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걸맞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는 축사를 낭독하였다.



본순서인 창립총회의 시작을 알리자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의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회원점명으로 창립총회가 시작되었는데, 최길수 경남민보련회장이 그간의 경과보고를 발표하고, 그동안 전국 민보련을 준비하기

■ 전국 민보련의 창립을 축하하는 임재택 교수.

■ 한숙희 초대회장에게 마이크를 넘기기 전 최현숙 준비위원장이 마지막 소감을 전하고 있다.



위해 애써온 준비위원을 소개하였다. 이어 청주 민보련회장 전은성씨의 낭독으로 정관 초안 발표가 있었는데, 정관 초안의 발표에 앞서 민간·가정보육시설의 특징, 전국을 포괄할 수 있는 정관을 작성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였다고 정관 작성에서의 준비위원들의 노고를 은근히 밝히기도 하였다.

임원선출 및 인사가 있는 후 준비위원회에서는 한숙희 원장(전 인천시 민보련 회장)을 전국 민보련 회장으로 추천, 만장일치에 의해 한숙희 원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전국 민보련 회장이 추대됨으로 인해 진행을 한숙희 원장에게 넘겨주게 된 최현숙 준비위원장은 "이 자리를 물러나기가 아쉽다. 이제껏 수고한 나를 위해 박수를 쳐달라."고 해 좌중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준비위원장을 맡아 수고한 최현숙 준비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제 첫출발을 하는 전국 민보련의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한숙희 회장은 "복지분야임에도 민간인 탓에 복지가 아닌 것처럼 인정받은 것이 아쉽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메꿔주시리라 믿는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한숙희 초대회장은 현재 인천 신나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으며, 작년 인천시 민보련 회장을 역임하여 민보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전국 민보련은 지난 94년 9월 10일 부산과 경남지역의 민보련 임원들이 모여 보육인의 자질 향상 및 권익보호, 민간보육의 발전을 위해 전국적 결집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동인식을 하면서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 대한 결성 발의의 과정을 거쳤다. 이후 분산되어 있는 지역 민보련과의 연결을 시도하면서 명실상부한 전국 결집체의 모습을 띄게 되었고 이제 그 결성식을 치루게 된 것이다.

현재 전국 민보련에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15개 지역이 편제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총 24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중심적인 활동들을 진행하게 된다.



■ 전국 민보련의 결성식이 도와 있게 한 장본인들인 지역대의원들이 모처럼 기념촬영에 임했다.

또한 회장 외에 상임이사, 이사 등을 두고 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구성, 실제적인 모든 일을 해결하게 된다.

전국 민보련은 이와 같은 조직구조하에 조직기구 정비, 홍보사업, 제도개선 사업, 교육사업을 펼쳐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소식지 계간 발간, 예산확보안 마련, 민간 보육 활성화를 위한 의견수렴 및 개진의 활동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 제시하였다.

전국 민보련은 서울시 민보련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351번지 한강빌딩 306호에 보금자리를 틀고 지난 3월 18일 개소식을 치렀으며, 연락처는 793-0115, 796-1096이다.

민간·가정보육시설이 전국의 보육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کم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은 극히 미진하였던 현실을 볼 때, 민간보육시설들의 전국적 연합체의 결성은 보육사업의 공공성 마련을 위해 대단히 의미가 크다.

전국에 있는 모든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보육사업의 적극적 개입으로 바람직한 보육사업의 상을 그려갈 전국 민보련의 앞날에 힘찬 전진만이 있기를 바란다.

■ 건강하게 살시다

유소아기의 피부발진(3)

이흥진 / 한림의대 부속 춘천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그동안 2회에 걸쳐서 유·소아기에 잘 걸리는 피부발진을 동반하는 질환에 대하여 말씀드렸다. 이번에 말씀드릴 질환들은, 발생하는 빈도는 앞선 질환들보다는 적으나 질병의 양상이 심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조기에 치료받지 못한 경우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가능한 질환들이므로 의심되는 경우 빨리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질환들이다. 따라서 어린이들을 가까이서 돌보시는 선생님들께서 이러한 질환들의 중요한 증상들을 알고, 혹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놓치는 경우 부모님들께 말씀드린다면 장기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조금 복잡하고 기분 나쁜 질환들이지만 감안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먼저 말씀드릴 질환은 **가와사키 증후군**이다. 이 병의 정식 명칭은 '점막 피부림프절 증후군'이라는 긴 이름이나, 일본에서 처음 보고된 관계로 '가와사키 증후군' 또는 '가와사키병'이라는 이름이 널리 통용되고 있다.

이 질환은 걸으로 나타나는 임상 증상이 상당히 심하며, 질환의 초기부터 아이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섭씨 38.5도 이상의 고열이 5일 이상 지속되며, 양쪽 눈의 결막이 충혈되고, 입술이 유난히 붉어지고 바깥 말라 갈라지며, 손과 발이 붓고 홍조를 띄며, 목의 림프절이 크게 부어오른다. 몸에 전체적으로 다양한 모양의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입안을 들여다보면 마치 성홍열때처럼 딸기 모양의 혀를 보인다. 열이 나기 시작한지 1주내지 2주가 지나면 손가락, 발가락, 항문 주위 등의 피부가 벗겨지며, 심한 경우에는 손과 발이 전체적으로 피부가 벗겨지기도 한다. 조기에 입원하여 치료하지 않으면 고열은 1주내지 2주 이상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이 병에 있어서 무서운 점은 위와 같은 증상이 아니라 열이 떨어진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의 합병증들이다. 그중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관상 동맥류이다. 관상 동맥이란 심장의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으로 여기에 손상을 입은 경우 심장 근육이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여 심근 경색증으로 심한 경우 돌연사할 수도 있다. 일본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청소년기의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이 '가와사키 증후군'의 합병증으로 인한 관상 동맥류라고 알려져 있다. 또 한가지의 중요한 합병증은 혈소판의 과다한 증가이다. 혈소판이란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이 혈소판이 증가한 경우 피가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혈전증을 일으켜 피가 흐르지 못하게 된다. 그외에도 관절염, 뇌막염, 간기능의 악화 등 많은 합병증들이 가능한 무서운 질환이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면 많은 부분이 예방가능하

다. 감마 글로부린을 정맥내로 투여하고 아스피린을 복용시키는 것이 중요한 치료법이며, 반드시 입원치료를 해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 이 병은 조기에 진단하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위에 말씀드린 증상을 보이는 경우 반드시 입원이 가능한 큰 병원을 찾아야 된다는 점이다.

두번째의 질환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다. 이 병의 이름은 알레르기성 자반증이지만 병의 발생기전은 아직까지 불분명하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다.

걸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 병의 증상은 특징적인 피부 발진이다. 주위의 피부와 다르게 붉은 색으로 솟아오른 (손으로 만지면 경계를 알 수 있는) 발진이 주로 발목관절(복성뼈)의 밖쪽으로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에도 솟는다. 이 질환에 흔히 동반되는 증상으로는 심한 복통이 있으며, 때로는 혈변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치료하면 대부분이 빨리 좋아진다.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뒤에 늦게 나타나는 또다른 합병증 때문이다. 병이 시작한지 4주내지 8주뒤에 늦게 소변에 피가 섞여나오거나 단백질이 나올 수 있다. 이는 소변을 만드는 장기인 콩팥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증상은 오랫동안 지속되며, 심한 경우 만성 신부전으로 이행되어 인공신장이나 이식수술 등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병이 의심되었던 경우에는 당장의 증상의 소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상이 없는 기간에도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병원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질환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다. 앞선 질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혈소판이란 혈액의 응고에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원

인에서 혈소판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피가 응고되지 못하여 출혈이 된다. 이러한 출혈이 피부 안에서 일어난 경우를 자반증이라고 하는데 혈소판의 감소로 인한 자반증의 특징은 점상 출혈이라고 하여 그 크기가 1내지 2mm 정도의 작은 출혈들이 모여서 나타나며, 앞의 알레르기성 자반증과는 달리 주위의 피부로 부터 돌출되어 솟아오르지 않으므로 손으로 만져보면 경계선을 알 수 없다. 혈소판 감소의 정도가 심하면 체내 특히 뇌안의 출혈이 있을 수 있으며, 이것이 가장 무서운 합병증이다. 따라서 입원하여 혈소판 감소의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정도에 걸맞는 치료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질환의 원인도 불명확하나 전구증상으로 상기도 감염(감기)이 있었던 경우가 많다.

이번에 말씀드린 질환들은 여러가지의 합병증 내지는 후유증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무서운 질환들이며, 한번 좋아진 후에도 잦은 재발도 가능한 좋지 않은 질환들이다. 이러한 질환들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예상 가능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또 장기적인 추적 관찰의 필요성을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뒤늦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을 조기에 진단, 치료할수 있게 해드리고자 함이었다. 여러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긴급분석

'95년 보육사업지침 분석

정리 박금희 / 오손도손어린이집,
안산 민보련 총무

보건복지부에서는 '95년 보육사업지침을 작성하여 각 보육시설 및 관련행정부서에 시달하였다. 보육사업 확충 3개년 추진으로 인한 시설확충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농어촌시설에 대한 지원력 등 '94년도 보육지침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부분에서 보육사업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올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육사업지침중 주요사항을 정리, 그 의의와 함께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문제점들을 정리해보았다.

양적 확충 의지가 두드러진 보육정책

'94년도 지침보다 양적 확충 계획이 그 기간과 시설수에서 더 큰 계획으로 잡혀있다.

보육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에 따라 향후 3개년('95~'97) 동안 보육시설을 7,590개소 확충하여 저소득층 자녀등 요보호대상아동의 보육기반을 완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95보육지침 9쪽). 따라서 '97년까지 3개년간 약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시설 7,590개소를 확충시킴으로써 아동 427천명을 추가 보육하게 된다.

이는 작년에 '97년도까지 저소득층 밀집지역등에 정부지원으로 2,036개소의 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동일기간('97년까지)임에도 무려 5,554개소의 시설수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렇듯 1년 사이 갑자기 많은 시설이 늘어날 것이라는 계획(판단)을 세우게 된 근거는 대략 다음의 세가지에서 찾을 수 있겠다.

첫째, 국민연금 용자로 인한 시설 확충이다. 참고로 지난 3월 15일자로 접수 마감된 국민연금 용자계획에 의하면 올해 신증축되는 시설은 1,020개소이다.

둘째, 용도변경의 절차와 자격의 간소화로 미인가 시설들이 양성화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이다.

작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 건축법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보육시설로 용도변경시 허가에서 신고로 완화하였다. 따라서 용도변경시 제출하던 설계도, 평면도 등 일체의 첨부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신고서에 변경전후의 평면도만을 기입하면 된다.('95 지침 32쪽)

한편, 재개발(예정)구역등 특수지역내의 미인가 시설에 한시적 조건부 인가(신고)조치를 취하였다.('95 지침 163~164쪽)

셋째로, 공공기관내 시설 설치 독려, 설치의무 사업장의 사업주 비용부담 의무 완화등을 통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화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유도정책이다.

지난 3월 22일 경제차관회의에서 처리된 시행령개정안에 의하면 상시여성근로자 500인에서 300인으로 의무사업장이 확대(전국 250개소에서 600개소)되었고, 사업주의 부담분의 감소(80%에서 50%로 바뀜)로 보육시설을 설치 용이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근의 언론의 보도(3월 21일자 노동자신문)에 의하면 노동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에 교사인건비(최고%~1/3)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확충계획안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몇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 용자건의 경우, 이제껏 성실히 보육사업을 수행해왔던 시설보다는 신축에 중점을 둬으로써 돈 있는 자의 또 다른 투기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담보물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기존의 보육시설에서 활용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

또한 설치의무 사업장이 이를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징계 등이 거의 없어 사실상 많은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작년의 경우 20여개소에 불과).

보육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수요증대로 인해 늘어나는 시설과 아동에 대한 예산과 담당 공무원 수의 부족도 이러한 확충의지를 감축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 더욱 혼란하고 조악한 보육현실이 초래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도 앞선다.

연도별 구분	계	'90~'93	'94	'95	'96	'97
계	2,036	1,637	75	110	110	104
○신증축	731	332	75	110	110	104
○전환	1,305	1,305	-	-	-	-

<표1-1, '94년도 보육시설 확충 계획, '94 지침 10쪽>

구분		'95	'96	'97	계('95~'97)
공공	계	2,246	2,696	2,648	7,590
	소계	1,000	1,050	1,100	3,150
	신증축	225	250	275	750
	사회복지·종교·학교시설부설	775	800	825	2,400
직장	소계	446	446	548	1,440
	공공기관내	76	76	88	240
	기업	370	370	460	1,200
민간	계	800	1,200	1,000	3,000

<표1-2, 보육시설 확충 3개년계획, '95 지침 10쪽>

보육료의 현실화

복지부는 보육사업지침을 통해 보육료를 현실화(장기적으로 자율화)하여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시설의 유아 보육료는 낮아 결국 표준보육단가 이상을 수납하게 되고 스스로의 공공성에 반신반의하게 하며, 영아시설의 경우 영아반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의 계획없이, 당연히(?) 높은 보육료(유아의 두배)를 부모에게 전담시키고 있다.

한편, '94년도 지침을 살펴보면 영아전담 보육시설, 휴일 및 야간보육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운영지원의 가능성을 밝혔지만('94 지침 12쪽) 실제 지원된 예가 없다. 영아보육이나 기타 수요자의 특수한 요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분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세미만	156,340	182,640	227,210
2세	149,180	175,750	227,210
3세이상	84,810	109,670	150,920

<표2-1, '94년도 표준보육단가, '94 지침 74쪽>

구분	국·공립 및 비영리법인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2세미만	197,780	244,830	286,530
2세	164,010	197,740	286,530
3세이상	93,000	121,620	167,520

<표2-2, '95년도 표준보육단가, '95년 지침 56쪽>

민간 보육시설 운영지원

민간 시설에 대한 운영비(교구교재구입비) 지원이 보육지침 속에 공문화된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93, 94년도 말 운영비 지원이 무계획적으로 연말 불용예산액에서 지급된 것에 비하면 특히 그러하다.

그러나 지원의 규모가 상당히 축소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3년도의 200만원, 94년도의 150만원에 비해, 95년의 30만원(자부담 포함)은 거의 지원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더구나 가정시설인 놀이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후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의 내분의 우려된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예산규모를 보면 "전체 민간시설"이 아닌 "모범적 민간시설"에 대해 선별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농·어촌 보육시설 운영지원

차량보육여부를 불문하고 차량으로 실제 보육아동을 통원하고 있는 시설에게 차량운영비를 제공하도록 하였다('95 지침 36쪽). 따라서 매년 2회(4월, 10월) 1,200천원(자부담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마을에 아동이 부족하여 여러 마을을 포괄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의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 지원책이라고 여겨지며, 이처럼 농·어촌 시설의 요구에 따른 다양하고 탄력적인 지원책의 지속적인 마련이 바람직하겠다.

정부지원시설 운영지원

우선, 대상시설수가 확대되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설치등에 소요되는 보조금을 받은 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범탁아소만을 지원('94년)하던 것에서, 근로복지공사에서 건립한 보육시설,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중 사회복지관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금년도 사회복지관부설 설치비 및 학교·종교시설 부설 설치비 지원시설 등('95 지침 81쪽)으로 지원 대상시설수가 많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추가운영되는 영아반이 있을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교사 수의 70%에 해당되는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영아 및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은 보육교사 소요정원의 70%를 지원하며, 야간보육시설은 야간보육에 따른 추가소요 교사 인건비의 100%를 추가지원하도록 하였다.

아동지원

지원선 마련에 있어 다양한 근거를 마련한 흔적이 보인다.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서 가구원수를 반영한 점, 지출규모(주거, 의료비)를 특별히 반영하여 가구당 월 평균소득에서 공제 계상한 것은 그간 지탁연등 각계 각층에서 요구한 지원선을 위한 사회지표 마련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가구중 80~90%가 3인가구로 결국 80만원이 적용되고 이는 작년과 지원선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소득에서 '가구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동수'가 가계구조에 더 큰 변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 ㉞형-조부(경제활동인구), 부, 모, 유아
- ㉟형-부, 모, 형, 유아

위의 두가지 예를 설정하였을 때, ㉞, ㉟ 두 유형 모두 4인 가구이나 실제 경제활동인구수나 연령 등에 따라 가계 부담이 다르게 산출된다.

결과적으로 94년 7만명에 비해 95년 9만명의 아동지원을 계획하였으나, 어느 년도와 같이 지원대상은 적을 듯 하며, 특히나 '94년도 월평균가구소득의 상승으로 실제 지원선은 작년보다 오히려 낮아졌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 이는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원선을 높이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진다.

가 구 원 수	2인까지	3인	4인	5인 이상
가 구 당 월평균소득	70만원까지	80만원까지	90만원까지	100만원까지

<표3-보육료 반액지원 대상아동 기준, '95 지침 79쪽>

지역조례의 중요도 확인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자체부담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의 확대가능선이 보다 넓어졌다.

'94년 지침에 의하면, 간식비, 차량유지비, 자원봉사자 인건비, 교재·교구비등 시설운영비와, 시설증·개축비, 개·보수비등 시설기능보강사업비,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의 경우 지역실정에 따른 확대 등이다. 일례로 작년 관악구와 도봉구의 경우 가구당 월평균 소득 9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아동으로 저소득층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한 바 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지원, 종사자 경력의 인정 등 인건비 추가지원, 민간보육시설 운영지원, 기타 종사자 및 부모교육 지원, 각종 행사 지원 등을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으로 확대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의 근거를 명시할 수 있는 지역별 조례 제정의 작업이 필히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시피 한 보육정보센터의 활성화가 요구되어야 하며, 이 내용 역시 조례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육지침상으로는 보육정보센터를 활성화하겠다는 가능성이 곳곳에 엿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계획 등이 나와있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들을 때만 좋은 말장난으로 끝날 수 있다.

보육사업 예산의 확대

그외 작년의 예산과 대비해볼 때 올 보육사업 예산이 작년의 150%가 증가하였다('95 지침 12쪽).

항목별로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과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항목이 신설되었고 시설기능보강비에서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와 종교 및 학교시설 부설설치의 경우가 새로이 삽입되었다.

예산 편성액을 살펴보면 종사사인건비중 기본급이 409,000원으로 산정되어 전체 보육예산중 인건비가 11.3% 가량 인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118,808,087	58,286,918	60,521,169
1. 시설운영(305목)		101,412,904	52,190,530	49,222,374
가. 시설별지원	1,606개소	65,053,323	33,191,760	31,861,563
○ 인건비	8,030명	54,742,275	27,929,928	26,812,347
○ 수당	8,030명	10,311,048	5,261,832	5,049,216
나. 아동별지원	70,507명	36,359,581	18,998,770	17,360,811
○ 법정저소득층아동	9,636명	9,206,423	5,048,701	4,157,722
○ 가구당 월평균 소득 80만원미만아동	60,871명	27,153,158	13,950,069	13,203,089
2. 시설기능보강(412목)		17,382,760	6,083,965	11,298,795
○ 시설신축	75개소	12,117,597	4,241,160	7,876,437
○ 시설증·개축	15개소	2,423,526	848,232	1,575,294
○ 개·보수	109개소	2,641,637	924,573	1,717,064
○ 장비비	100개소	200,000	70,000	130,000
3. 기타 행정경비		12,423	12,423	-

<표4-1, '94보육사업예산, '94 지침 11쪽>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계	국고	지방비
계		177,840,434	83,405,556	94,434,878
1. 시설운영(305목)		124,472,038	64,441,597	60,030,441
가. 시설별지원	2,481개소	75,209,248	36,843,559	38,365,689
○ 인건비	8,414명	60,929,081	29,851,137	31,077,944
○ 수당	8,414명	14,280,167	6,992,422	7,287,745
나. 아동별지원	89,195명	48,199,830	26,974,374	21,225,456
○ 법정저소득층아동	10,000명	10,735,469	5,728,319	5,007,150
○ 4인가족기준 월평균 소득 90만원미만아동	79,195명	37,464,361	21,246,055	16,218,306
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61개소	253,680	138,096	115,584
라. 농·어촌소재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843개소	809,280	485,568	323,712
2. 시설기능보강(412목)		52,929,903	18,525,466	34,404,437
○ 시설신축	150개소	24,948,000	8,731,800	16,216,200
○ 시설증·개축	75개소	6,237,000	2,182,950	4,054,050
○ 사회복지관등 부설설치	55개소	1,650,000	577,500	1,072,500
○ 종교및학교시설부설설치	700개소	17,500,000	6,125,000	11,375,000
○ 개·보수	98개소	2,444,903	855,716	1,589,187
○ 장비비	75개소	150,000	52,500	97,500
3. 연구개발비, 민간단체 지원, 행정경비등 기타		438,493	438,493	-

<표4-2, '95보육사업예산, '95 지침 12쪽>

■ 활동보고

'95년 교사 겨울수련회 및 제10회 정기총회

- 올해년 교사들의 합성을 담아 -

편집부 정리

교통편이 좋지 않은 부여에서, 그것도 교사들이 참여하기 힘든 겨울에 예상외로 많은 회원어린이집 교사들의 참여로 뜨거운 열기를 더할 수 있었던 '95년 교사 겨울수련회. 부여의 하늘을 찌를듯 울리게 하고도 남았던 우리들의 합성과 웃음을 공개한다.

95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3일간 부여에서 진행되었던 교사겨울수련회 및 제10회 정기총회는 12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모처럼의 합박눈과 함께 폭찬 일정 속에서 지탁연의 미래와 어린이집의 운영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다.

백제의 한이 서린 곳, 부여.

한때는 백제의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며 수도의 위엄을 한껏 자랑하던 부여는, 이제 개발순서에서 다분히 타지에 비해 뒤떨어진 소박한 동네로 변해있었지만, 그곳이 안고 있는 영광의 흔적을 저마다 떠올리면서 보낸 수련회는 지탁연에 대한 애정과 열려로, 서로에 대한 격려와 믿음으로 충분히 넉넉한 시간이었으리라 짐작한다.

수련회에 참석한 각 지역별 소개가 있는 후 김광식(21세기 한국연구소 소장)선생님의 강연을 첫순서로 본격적인 수련회는 시작되었다. 일상보육활동에 매몰되다시피 생활해왔던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사회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변화를 짐작, 예견하여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사회분석의 강연은 교사들에게 많은 힘을 주었다.

김광식 선생님의 강연 후에는 지난 94년 7월중에 진행되었던 일본연수단의 일본보육 시설연수 비디오테이프를 시사하는 시간이 있었다. 연수단이 일본에서 보고 느꼈던 경험을 전국의 현장교사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 유익하였다.

저녁식사와 약간의 휴식을 취하고 난 저녁 7시부터는 정희연 부회장의 사회와 최현숙 회장의 발제로 진행된 「조직 및 활동방향에 대한 논의」는 조별토의로 이어져 연합회 사업의 방향과 내용설정에 대한 회원교사들의 심도깊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탁연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회원간의 유대감과 연대의식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95년 겨울수련회 및 제 10 회 정기 총회

1995년 1월 3일~5일
부여삼정유스호스텔
지탁연 지탁연 조식 및 활동방 향에 관하여



둘째날인 1월4일은 예년과는 다르게 기상체조가 아닌 부소산성 산책으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였다. 부여로 장소를 잡은 덕분에, 그것도 합박눈이 펄펄 쏟아지는 한적한 부소산성을 천천히 오르면서 동료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교사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다. 그 탓에 아침식사에 모두들 늦어 유스호스텔 직원들로부터는 식사시간에 늦게 온다고 온갖 투덜거림을 들어야만 했지만, 까짓 그래도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로움과 합박눈인데 야단맞아도 좋다는 듯 허죽허죽대며 식판을 내미는 교사들의 모습은.... 그래 개구장이 아이의 그것과 똑같았다.

푸짐한 밥상을 받아들고는 이내 강당으로 모여들어 현장교사들이 진행한 「교육소모임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들었다. 우리 교사들이 저렇게 말을 잘 했었나 싶은 정도로 충분한 내용, 고민을 정리해서 동료들에게 전달하는 교사들의 모습은 자랑스러웠고, 더불어 교육소모임에 대한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 교육의 내용을 다시 고민할 수 있었다.

현장교사들의 강연이 있는 후 김종철(어린이도서관연구회 부회장)선생님의 강연이 있었다.



다. 「교사와 그림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은 우리가 쉽게 지나쳐왔던 아동그림책에 대한 안목과, 그림책을 대하는 아이들의 사고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어서 더이상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보여주는 활동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오후는 인천지역 교사노래단의 화음으로 시작되었다.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부르면서 공동체놀이를 준비하였다.



■ 얼마나 추웠으면 표정들이 다 이렇까...

을 낀 채 발을 동동 구르며 잔뜩 긴장해있었다. 그러나, 어찌랴. 서울에서 일부러 공동체놀이를 위해 무거운 물품들을 실어날랐는데 아까와서라도 해야지.

부산지역 선생님들이 알려준 '웃놀이' 노래와 율동으로 몸을 풀 후 격렬한 몸놀리로 이어졌다. 인간바베큐, 림바게임, 물풍선 던지기, 인간릴레이 등 몸을 아끼지 않고 움직였던 교사들은 금새 추위를 잊고 놀이에 빠져들었다.

놀이에 힘들고 지친 몸을 잠시 녹이고 드디어 제10회 정기총회. 뽕뽕바방~

평소 전혀 위엄을 보이지 못한다고 사무국 일꾼들로부터 심한 지적을 받은 최현숙 회장은, 총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 정장차림으로 하고 근엄한 표정으로 총회의 개최를 선언하였다. 다만 흠을 찾는다면 정장차림의 바지 아래로 드러난 빨간 등산화. 수련회가 끝나는대로 휴가차 등산을 가려고 계획했던 회장님은 차마 구두를 싸울 겨황이 없었던 것이다.

올해의 주요안건은 지탁연의 사업방향과 재정에 대한 논의였다. 보기 드물게 많은 회원교사들이 앞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고 저마다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제출된 안건은 이번 신입 지역대표자 합숙에서 논의되어 각 지역에 전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총회도 끝나고 난 시간. 평소같으면 방마다 노래에 웃음소리에 시끌벅적들 했겠지만 이날부터 중고등생들이 함께 장소를 사용하게 되어 교사들이 자제를 한 것인지 조용조용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을 청했다고 한다.

마지막날인 1월 5일은 연이어 내린 눈으로, 수련회 평가를 마친 교사들은 전원 기념촬영을 하고 모두들 숙소 앞의 공원에서 눈싸움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

눈싸움에 지쳐 하나둘 숙소로 되돌아오는 즈음에 눈길을 헤치고 서울에서 MBTI(성격유형검사)를 하기 위해 강사님이 도착했다는 반갑고도 다행스러운 소식이 전해지고 드디어 강당에서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는 시간. 자신과 닮은 성격, 자신과 어울리는 성격, 그렇지 못한 성격... 지필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의 성격을 알았으니 이제는 함께 생활하는 교사들과 갈등을 빚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렇듯 유난히 푸짐한 프로그램과 한적한 장소, 입맛 땡기는 식사로 2박3일을 채운 교사들은 제각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물론, 중간에 대천이나 공주 등지로 다시 삶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이들도 있었지만.

함박눈이 펄펄 내려서 푸근한 날씨가 될 것 같더니만, 웬걸. 어느새 진눈깨비로 변하고 바람은 마치 눈보라로 변한 듯 심하게 부는데 이번 교사수련회는 실내가 아닌 야외에서 진행하기로 되어있었다. 비와도 한다, 눈와도 한다, 아무리 추워도 한다고 결심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날씨가 협조를 안할줄이야... 준비해온 진행팀도 당황했지만 직접 몸을 굴려야 하는 교사들은 추위에 어쩔 수 없다는 듯 팔짱

■ 시사말뚱이

여성, 보이지 않는 희생자

-사회개발정상회의와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

편집부 정리

지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전세계 모든 나라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간중심의 발전'이라는 과제를 두고 인류가 나아갈 길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사실상 유엔과 비정부기구(NGO)들의 공동주최 성격을 띠고 있는 '사회개발 정상회의'는 저개발국의 광범위한 빈곤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유엔의 상황인식과 외채탕감 등 개도국의 강력한 경제적 요구가 기본 추진력으로 작용해 제안되고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동반자 정신'을 통해 인류전체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개발 정상회의(WSSD)'에서 각국 정상들은 새로운 국제협력과 국가정책을 위한 올바른 방향 그리고 행동계획을 담은 '사회개발을 위한 선언과 실천계획'을 채택하게 된다. WSSD의 슬로건은 빈곤타파, 연대확립, 고용창출이다. 이는 빈곤퇴치, 고용증대, 사회통합이라는 3대 핵심과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주제가 광범위한 만큼 인권·환경·여성·아동·노동·빈민·보건·종교·과학·사회봉사·사회복지 등 셀 수도 없는 다종다양한 분야의 비정부기구들이 회의장에 몰려들고 있다.

한편,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는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전후 50년에 맞춰 아시아지역 전쟁 피해국들이 한자리에 모여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확실한 배움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컸고, 특히 중군위안부문제의 가장 큰 피해국인 남북한이 공동으로 일본에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를 마련한다는 데서 큰 관심을 모았었다.

그동안 핵사찰 문제와 김일성 주석 사망 등으로 얼었던 남북한 경제 국면으로 1년 3개월만에 북한 방문단이 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민간차원의 주도로 새로운 국면이 트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지난 92년 우리 나라에서 처음 열렸던 제1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참여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

북한 참여를 허용한 것은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문제가 국제문제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도 엿볼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다.

특히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 협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주요한 사항으로 제시했으며, 지난 92년 2월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 이래 계속 남북한이 공동으로 위안부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우리쪽보다 훨씬 강경한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또한 남한이 지난 65년 한일협정을 체결해 일본쪽으로부터 배상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전후 일본쪽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현재 북한에 생존중인 일본군 '위안부' 숫자는 1백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북한 쪽의 대우가 어느 정도인지 등은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일본쪽으로부터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행사 전일 북한측의 불참 통보로 이런 기대는 모두 꺼져 버리고 말았다. 정부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남북간 민간교류라는 순진한 기대는 그냥 어이없게 사그라져 버리고 행사 관계자와 주최자들에게는 실망과 당혹감만 안겨주고 말았다.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일본측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로금 지급방안에 대한 아시아지역의 공동의견을 모으는 작업이었다.

그간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활동의 간략히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90년 5월 10일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교회여성연합회·서울지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등이 노태우 대통령 방일에 앞서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실은폐 중단과 진상규명·공식사과를 촉구.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처음으로 사회이론화됨.

90년 11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발족

92년 1월 24일

한국정부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 설치

91년 2월 25일~6월 25일

정신대 피해자 신고접수 결과 종군위안부 1백55명 접수.

92년 12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군대 위안부문제 논의

93년 2월

제49차 유엔인권위에서 군대 위안부문제 논의.

93년 2월

한국정부 정신대 피해자 신고접수 결과 발표.
위안부 2백51명(이중 생존자 1백41명) 신고접수.

93년 3월 13일

김영삼대통령 대일보상 불요구 방침 천명.

93년 5월 18일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법안 국회통과

93년 12월

일본정부, 옛 종군위안부들에게 '위로금' 지급 위한 '민간기금준비위' 구성 방침 밝힘.

그러나 민간의 적극적인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은 '일본쪽에 배상금은 따로 청구하지 않돼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죄를 요구' 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민간이 배상을 요구할 때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어중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대협은 일본쪽의 민간위로금 지급방안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반박공세를 촉구하고 있다.

WSSD에는 유럽 순방중인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우리의 발전 경험을 세계에 알리게 된다고 한다. 냉전의 혹독한 상황을 딛고 성장을 이룩한 한국의 경험이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하나의 전형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세계에 나가 '인간 중심의 발전'이나 '삶의 질' 향상을 이야기 하기 전에 앞서 눈앞에 보이는 인간 상실과 소외의 대상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동반(同伴)자 정신'으로 실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동안 성장제일주의의 그늘에 가렸던 인본주의를 되찾고 인간중심의 새로운 발전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쉼없이 1백여 차례 넘게 일본대사관 앞에서 계속 항의시위를 계속해온 피해자 할머니들의 절규하는 목소리는 대사관 철문에 튕겨져 메아리가 없다. 하지만 외롭게 싸우고 있는 그분들의 애처로운 모습이 우리들조차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3월 8일 87회 '세계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인터내셔널)가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과 뿌리깊은 차별의식, 여성운동에 대한 억압때문에 90년대 여성은 인권유린의 대상이 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어디 90년대만 그러하겠는가! 지난한 역사의 굴곡 속에 기득권자와 권력자들에게 묵인되고 비호되며 자행되어온 폭력과 위협 속에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었다.

이제는 더이상 여성이기 때문에 소외되거나 울게 해서는 안 될 것이리라!

모임과 모임

일본어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일본 유아관련책자 번역모임)

작년 일본연수를 다녀오면서 가져온 일본 책자, 자료가 번역을 하지 못해 먼지만 쌓여갑니다. 일본어를 하시거나 번역경험이 있는 선생님들끼리 모여 소중한 자료를 찬란한 보석으로 만듭시다. 연락처 - 지탁연 사무국 오운정 ☎ 02) 275-8505~6

■ 글마당

탁 아 소 별 곡

[우리동네아기둥지]편

이야기 하나. 고슬이의 친정

설을 쇠고 오랜 연휴 끝에 아기둥지 친구들을 만난 날.
설 연휴를 보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에 아이들은 되는 말, 안되는 말 섞어가며 발표를 한다.

선생님 : 이번에는 고슬이가 얘기해 보도록 할까?

고슬이 : 저는요, 설때 시댁 먼저 갔다가 두 밤 자고 친정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 ???

이야기 둘. 소희의 과학

영양가 없는 오뎅을 파는 가정이 있는데 한달에 한두번씩 꼬박꼬박 오뎅을 한 자루씩 갖다주셔서 간혹 점심에 오뎅 반찬을 하게 된다.

어느날은 간식비도 떨어져 오뎅으로 눈물을 머금고 오후 간식을 준비했다.

이름하여 오뎅국.

마지막으로 냄비에는 따뜻한 국물에 다시마가 넓게 퍼진 채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보고 상곤이와 소희가 나눈 대화.

상곤이 : 탁- 머역이 크다.

소희 : (진지한 표정으로 가우똥거리며) 머역이 들어가있네.

그러면 저 국물이 바다로구나...

이야기 셋. 선생님의 결혼식

얼마전 아기둥지 윤이선생님이 결혼을 하셨다. 결혼 전에 예비신랑이 틈틈이 찾아와서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곤 해서 얼굴을 기억하는 애들이 많은데 특히 상곤이가 아주 잘 따랐다.

아기둥지 네살박이 상곤이는 스타킹과 남자어른을 무지무지 좋아하여, 스타킹 신은 사람만 있으면 발을 붙잡고 쓰다듬기 바쁘고, 남자어른에게는 누구든지에게 "아빠"하며 달려드는 묘한 버릇이 있다. 상곤이가 윤이 선생님 신랑에게 "아빠, 아빠"하며 잘 따르니 다른 친구들도 "선생님, 상곤이 아빠 오셨어요."하는게 익숙한 편.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 : 친구들아, 윤이 선생님이 결혼하신대요.

아기둥지에 맛있는 것 사주고 자주 오시면 아저씨 있지요?

그 아저씨랑 결혼하게 되었대요.

그날밤 산이가 집에 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산 이 : 언마, 윤이 선생님이 결혼한대.

산이엄마 : 그대?

산 이 : 근데, 누구랑 하나면 상곤이 아빠랑 한대.

이 말을 듣고 놀란 엄마, 당장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산이엄마 : 선생님, 도대체 무슨 얘기에요?

■ 우리들의 목소리

재일동포를 뒤흔든 한신대지진

김광민 / 재일교포 3세,

해송아기둥지 자원활동가

지난 1월 17일 아침 5시 46분 진도7의 초강진이 서일본지방의 공업·상업 중심지인 한신지방을 강타했다.

아침 한 10시나 되었는지, 텔레비전을 통해 오사카·고베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뉴스가 나왔다. 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가족이 사는 곳이 오사카이고 한신지역은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재일교포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방송을 통해 속속 드러나는 피해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갔다. 그럴 때마다 가족이나 지인들에 대한 걱정이 커졌고, 아직 그곳에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일단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자 안도는 했지만 가장 피해가 심한 고베지역에 사는 우리 재일동포들의 피해정보를 그 시점에서는 전혀 알 길이 없어 통화가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어보는 일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원래 그 무렵 집에 가보려던 예정이어서 19일 서울을 떠나 오사카로 향했다. 그리고 오사카에 도착하자마자 고베에 들어가 보려고 준비를 했다. 지진이 일어나자 각 민족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지역의 동포 구제에 나섰는데 20일 밤에 나는 민단 산하에 있는 청년회의 구원대에 편승해서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신지역은 일본의 공업·상업 중심지이면서도 재일동포 사회의 중심 지역이기도 하다. 재일동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민족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또 필연적으로

동포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신지방에는 동포가 약 20만명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귀화한 동포·혼혈동포·한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불이 나 순식간에 엄청난 면적을 태워버린 고베시 나가타구 일대는 동포 다수 거주지구이고 또 집중적으로 타버린 일대는 어렵게 어렵게 50년 동안 동포1세, 2세들이 이루어낸 신발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 나가타지역은 동포의 해방후사(解放後史)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48년에 4.24 한신 교육투쟁이 일어났던 바로 중심적인 곳이다. 강제연행이나 토지수탈에 의한 도일(渡日)로 일본에 끌려왔던 우리는 귀국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민족교육을 시키느라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학교를 일본 전국에 세웠다. 그러나 당시 G.H.Q.(연합국 총사령부(실상은 미군):바로 이 G.H.Q.가 한신 지역에 일을 저지르기 전에 제주도에서의 대학살에 가담했다)와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폐쇄령이 내려졌다. 이에 항의하는 투쟁이 그것인데 그때 일본패전후 처음이자 마지막인 비상사태선언을 선포할 정도 어마어마한 투쟁이 일어났다. 바로 그 핵심적인 현장이 이 나가카지역이었다.

또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나 역시 나가타지역과 인연이 깊다. 해방 후 엄청난 차별과 분단의 어려운 정치상황 속에서도 민족을 지켜온 동포들이 사는 나가타지역에서 동포청년들이 모여 당당히 재일교포의 존재를 알리고 차별극복과 민족문화 계승을 위한 행사를 오랜 준비 끝에 90년부터 가졌었다. "나가타 마당"이 그것이다.

날짜는 늘 "4.24"에 가까운 일요일에 열려 그때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꼬마 아이까지 함께 어울려 이국 땅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생을 위로했다. 그리고 나가타마당에는 민단·총련이 함께 협력했었다. 나 역시 그날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참여해 동네의 동포들이 경영하는 공장지대를 누비면서 길놀이를 함께 하며 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동포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그런 나가타지역이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한국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거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불이 났다. 지진과 화재는 대부분 동반해 발생한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불이 나기 시작한 때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순식간에 그 세력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것이다. 또 거기에다가 여러 곳에서 도로가 차단되어 대정체가 일어난 탓에 소방차 도착이 늦어졌고 설상가상으로 소방차가 도착해도 상수도관의 파열에 의해 물이 중간 지점에서 다 새버려 나가타지역까지는 오지 않는 것이었다.

모두 다 타버렸다. 물론 모든 공장이나 민가가 타버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가타지역에서도 동포가 경영하는 신발공장과 동포민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구가 전소되다시피 했다. 그때 내가 평과리를 치며 다니던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50년이 하루 이틀만에 무너졌다.

엄청난 차별과 전쟁과 분단에도 꺾이지 않았던 동포의 "살터"가 눈 앞에서 불타고 있는 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내 머리속에는 온통 그런 생각만 빙빙 돌고 있었다. 적어도 21일 아침 나가타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러나 나가타에 들어가 일본 전국각지에서 동포들이 속속 들어 보내주는 주먹밥·의복·기저귀·이불 등을 이재민 동포들에게 나눠 드리는 사이 그런 감상은 씻어 버리게 되었다.

살아야 했다. 살아야만 했다.

모든 재산을 잃어도 갓난아이를 위해 우유와 기저귀를 찾아야 했고, 재건의 곡괭이로 아무리 시키렇게 된 손이라도 주먹밥을 들고 오늘과 내일, 모래를 살아야 하는 것이었다.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머리 속에 남아있다. 구원대를 보고 달려와서 "기저귀 없어요?"라고 외치던 젊은 아버지. 물이 없어서 아이를 닦아 준다고 퀘트 티슈를 받아간 젊은 어머니.

너무나 많은 동포들이 돌아가셨다. 그리고 많은 동포가 아직도 피난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내가 현장에 있으면서 듣게 된 말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둡지 않았다. 오히려 밝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재민 동포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굳은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엄청난 차별에도, 전쟁과 분단에도 우리는 굴하지 않았다. 그래도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이번 대지진도 당연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꼭 이겨야만 된다. 이재민 동포만이 아니다. 피해가 없었던 동포들도 민족의 역사를 걸고 해방 50주년에 다시 불어닥친 이 난관을 많은 이재동포들과 함께 헤쳐 나갈 것이다. 그렇다. "다시 시작하는 투쟁"인 셈이다. 집·가족·생활·신발공장·민족학교·민족단체 사무실, 그리고 나가타마당....

국내 동포들도 재일동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역사적인 난관을 극복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그 성원에 우리는 더욱 용기를 얻을 것이다.

돌아가신 많은 동포를 위해 마을에서부터 명복을 빕니다.

걱정 마시고 편히 쉬십시오. 우리는 다시 되살아납니다.



기쁜 우리 사랑

김태일 / 편집부원 주혜민씨 남편,
「푸른영상」카메라맨

우리가 만난지 벌써 만 1년이 넘었다. 이제는 결혼을 하여 신혼여행중이지만, 만나서 결혼까지 늦은 나이에 참으로 행복했다.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달콤한 것과는 다른 느낌들이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고 가슴을 때리는 몽환함이 있었던 지난 시간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제 신혼여행의 종착지에 도착한 것 같다.

우리가 태어난 땅에 대한 애정, 서로의 소박함을 다시금 확인하여 기뻐다. 내내 차를 타고 다니는 강행군이었지만 스치는 차창 풍경 속에서 무수한 느낌들을 받을 수 있었다. 동해의 푸른 물결들이 넘실거리며 아기자기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해안선의 모습.

보길도의 본실한 삶의 행적, 사람들의 투박하고 절진 삶.

“정곡리 사람 있습니까? 정곡리 사람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다. 한 할아버지가 나중에 “여기여-.”

검게 탄 얼굴,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 아저씨는 돈 만원을 건네주며 “정곡리 ○○한테 주세요. ○○씨가 주는 것이라면 알려주세요.”

얼마나 삶이 재미있고 멋스러우나. 누군잘 잘 모르지만 한 섬에 살기에 아무나에게 전해줄 수 있는 신뢰감. 세상은 저런 모습이어야 한다.

섬들이 촘촘히 서있는 남해 그 사이로 하얀 스트로폴 덩이들이 바다를 덮고 있었다. 김밭이라고 했다.

인간의 무한함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바다의 모습 속에서 차창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보다는 삶을 발견할 수 있어 좋았다.

누구보다 나의 동반자. 반쪽이. 그리고 동지인 주혜민씨.

난 그녀를 만나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그녀의 길이는 나를 놀라게 한다. 그녀의 마음은 너무도 포용력이 있다. 사물을 보는 눈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나의 선배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배울 수 있어 기쁘다.

오늘 서산의 해는 밝았다.

망월동에서 서산까지 오면서 난 알 수 없는, 정말 알 수 없는 역사의 흐름에 대해, 민초(民草)와 나의 삶에 대해, 그리고 그녀와 나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인연, 우연, 필연, 사랑, 운명 같은 것, 결혼, 관계, 생활, 계획들.

조금씩 걸히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혼자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이 결혼과 동시에 가능하리라는 전망, 힘든 일도 많겠지만, 아주 낙관적이다. 특히 결혼과 동시에 남자나 여자는 일상으로 돌아간다. ‘○○의 인상은 끝이다.’식의 좌절 혹은 스스로 굴복하고 마는 것이 결혼이라는데, 나는 오히려 큰 힘을 얻었다. 마찬가지로 그녀의 삶에 나는 큰 촉매가 되고 싶다. 만만찮은 삶일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은 삶이 또 어디 있으랴. 남들처럼 당당하게 살 것이다.



■ 소식과 소식

◀ 전국 민보련 창립총회,

전국, 서울 민보련 사무실 개소

1월 17일(화)의 서울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출범을 뒤이어 지난 2월 24일(금) 오후 2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는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이하 '전국 민보련')의 창립총회가 진행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200여명의 보육시설 원장과 축하객들이 함께 한 가운데 최현숙 준비위원장(본 회 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총회는 임재택 부산대 교수('우리 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회장)의 축사와 그간의 경과보고, 정관 승인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전국 민보련의 초대회장으로는 한숙희 원장(전 인천 민보련 회장)이 준비위원회의 추대로 선출되었으며, 그간 전국 민보련의 창립 준비에 많은 열정을 쏟은 최현숙 준비위원장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되었다.

전국 민보련은 용산구 한강로에서 서울시 민보련과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이미 3월 18일(토) 오후 2시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는 서울 경인지역 뿐이 아닌 전국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전국, 서울시 민보련의 화합된 모습을 나타내주었다.



◀ 제11회 한국여성대회

올해로 11회를 맞이한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남녀 유권자 한마당'으로 치뤄졌다.

'일련 정치 생활정치, 여성대표를 지방의회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난 3월 12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장장 세시간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주최로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제적인 성격으로 마련되었는데, 작년에 비해 음향이나 조명 등에서 보다 많은 효과를 선보이기도 하였다.

특히 이번 지자체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여인이 추천하는 여성후보 14인을 소개하는 시간과, 여인이 의회하여 만들어진 "부엌에서 로마로"라는 노래가 선보이는 시간도 있어 이채로웠다.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3월 15일(수) 오후 3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이오덕, 한승헌, 이윤구, 주정일)가 결성되는 뜻깊은 자리가 홍사단 강당에서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어린이도서연구회, 공동육아연구회 등 15개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이 연

대회의는, 94년 11월 우리 정부에서 '유엔아동의 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보고서 제출 이후 10월에 열릴 제네바의 회의에 참석하여 민간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한편 연대회의에서는 이후의 사업계획 표명에서 6월 중순경 정부-민간단체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일간지에 기획시리즈를 연재하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홍보사업 및 연대활동을 계속 피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 노동부, 직장보육시설 지원

노동부는 16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과 시행지침을 마련해 재정경제원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친 후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여성인력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대기업의 경우 인건비의 절반을, 중소기업은 3분의 1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노동자에게 2달간의 유급출산 휴가를 준 뒤 무급으로 10개월 이내의 육아 휴직을 허용해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자 1명당 최고 월 15만원까지 육아 휴직 장려금이 지급기로 하였다.

◀ 서울시, 보육료 자동부과제 도입 계획

서울시는 지난 19일, 보육료를 소득제 납부 실적에 따라 차등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일본에서 일찌기 시행해오고 있는 이 '차등제도'는, 운영을 공무원이 전담하고, 운영과정에서 적자가 났을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현재 우리의 여건상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소득재분배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담당공무원의 부족과 보조금 지급의 문제 등으로 인해 초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해주세요.

- 부친 아이사랑어린이집에서 딸혼리고 계시는 박부자씨가 4월 2일(일) 오후 2시, 봄햇살을 받으며 잠실 아시아공원내 송파문화예술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 광주지역의 대모, 박말신 선생님(도담도담 아기둥지)께서 4월 5일 오후 2시에 영광문화예식장에서 웨딩마치를 올리십니다.

- 이리지역에서 아이들과 지내시던 김미숙 선생님(정다운 어린이집)은 4월 16일에 원광대 캠퍼스내 임균수광장에서 인생의 새출발을 멋지게 하신답니다. 참, 예식은 12시, 정오예요.

몸이 되니까 많은 분들이 결혼을 하시네요.
그 자리에 함께 하진 못하지만 여러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 이전합니다.

- 본 회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소장 장미경)가 여성평화의 집을 떠나 보다 쾌적한 공간으로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새로이 입주한 사무실은 본 회가 입주해 있는 여성평화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엠버서드 호텔 옆 건물입니다.

변경된 주소와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시 중구 목정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268-3954(대) 271-1547~8

연합회 3월 일지

2/23 전국 민보련 준비위, 보건복지부 면담

24 전국 민보련 창립대회

편집부 기획회의

25 교육연구부 모임

26 자활 연대회의

3/ 2 서경지대의

7 교육발전특별위원회

8 소모임 추진위원회

9 편집회의

'여성의 전화' 이취임식 참석

(최현숙 회장)

11 권리연대회의 2차 집필진 모임

(회장 참석)

12 한국여성대회

15 어린이·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결성식

및 기자회견

16 집행위 회의

편집회의

3/17 그림책 소모임

18 전국 민보련 사무실 개소식

19 자활 연대회의

20 집행위 회의

여성평화의 집 실무자회의

21 지방 지대의

소모임 추진위원회

23 서울경인지역 집대표자회의

23-24 여성개발원 토론회 (회장 참석)

24 자연과 어린이 소모임

25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사무실 이전

28 여연 집행위

29 여연 정사위

30 제1차 월례교육강좌

31 편집회의

국악·전래동요 소모임

■ 탁아계 동향

◀ 월령별 이유식 식단 개발

연세대 손경희 교수(식품영양학) 연구팀에 의해 월령별로 소화가 가능한 3단계 이유식 식단이 개발, 최근 학회지에 보고되었다.

발달단계에 따른 필요영양과 소화능력에 따라 3-4개월은 삶은 과일 또는 야채와 과즙, 5-8개월은 과즙과 삶은 채소죽, 9-12개월에는 건더기를 넣어 씹히는 죽과 과즙이 바로 3단계 이유식 식단.

이 보고서에는 순수 액체(1단계), 가루와 즙을 이용한 걸쭉한 유동식(2단계), 2단계의 재료를 더 크게 갈거나 통째로 이용한 이유식(3단계)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과전에 구세군어린이집 설립됨

영세민, 편모·편부, 맞벌이 부부의 취약 전 자녀를 대상으로 총91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되는 구세군 과천영문 부설 어린이집(원장 홍성효사관)이 지난 6일 개원되었다.

전평 80평 규모의 이 어린이집은, 영세민 자녀에게 보육료 50%의 감면혜택과 함께 우선 입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 장애인 복지관에

‘물 치료실’ 설치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마비성환자와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물 치료실’과 ‘심리운동 치료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7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달중에 서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치료실 건립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완공키로 했다.

물 치료시설은 물의 부력과 거품을 이용해 마비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며, 심리운동 치료시설은 이미 프랑스에서 정서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또 교통사고나 불의의 사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훈련실도 설치된다. (서울시청뉴스 95.3.16.)

◀ 제7기 주부대학, [어머니창조학교]

‘여성복지회관’과 ‘구일어머니창조학교’준비모임,에서는 제7기 주부대학을 마친, ‘21C 꿈을 실현하는 자녀교육을 위한 어머니창조학교’를 진행하고 있다.

3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주1회로 운영되며, 중간참여도 가능하다.

교육기간 : 3/7 - 5/10(오전 10시-12시)
장 소 : 구로1동 동사무소 3층 (839-2672)

참 가 비 : 2만원(교재비 포함)

입 금 처 : 농협 039-01-218437 이영순

문의전화 : 837-3072

일정	강좌내용	강사
3/7 (목)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오 수 모 (영양영양사, 병영)
3/15 (수)	21세기 부모를 위한 영유아	문 수 모 (공공보육관, 영유아)
3/22 (수)	영유아 위한 교육, 영유아	박 영 현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3/29 (수)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장 문 모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4/4 (목)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오 수 모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4/12 (수)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문 수 모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4/19 (수)	TV, 영유아 발달	박 영 현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4/26 (수)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문 수 모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5/3 (수)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박 영 현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5/10 (수)	영아 위한 영유아 발달	문 수 모 (영유아보육관, 영유아)

◀ 법률-가정문제 상담

북부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월-화-목요일 오전 10시~오후4시 법률-가정문제 상담을 한다. 02(934)7711

◀ 부모역할 훈련모임

이화여대 사회복지관은 4월 7일 ~ 5월 26일 매주 금요일 만 5세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 훈련모임’을 연다. 자녀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 책임감을 키워주는 법 등을 강의한다. 선착순 15명 모집. 6만원. 02(360)2597

◀ 풍진 예방접종 실시

서울시 강서구 보건소에서는 지난 2일부터 관내 15세 이상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풍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예비 산모의 풍진을 적기에 예방하면 정신지체아, 청각장애, 심장질환, 감염성 폐렴, 백내장, 녹내장 등 전염성 질환에 노출된 장애아 출산을 예방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651-5093

◀ 장애아동 물리치료실 운영

서울시 영등포구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봉사센터에서는 삼성복지재단의 지원을 받아 장애아동을 위한 물리치료실을 무료운영하고 있다.

3세에서 15세까지의 뇌성마비 및 신체부자유 아동이면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영등포구 인근구에 거주하는 아동도 이용 가능하다. 문의전화 02)845-3980

◀ 발달장애아동 치료

대한특수장애인선교회 부설 특수조기교육원에서는 만 2세부터 15세 미만의 발달장애아동을 모집한다.

언어, 유아자폐, 다운증, 뇌성마비, 청각장애 등을 가진 아동중 교육이 가능한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 및 소그룹치료를 하게 된다.

문의전화 0343)22-0667, 23-7774

◀ 4월을 풍성하게 하는 인형극 안내

‘우리인형극단’에서는 4월 한달간 올림픽 예술회관과 현대아트홀에서 ‘피노키오의 모험’의 2편의 인형극을 공연한다.

‘피노키오의 모험’

일시 : 4/5-4/30

평일 11시, 주말 12시, 2시 공연

장소 : 올림픽 예술회관

문의 : 02)420-7211~5, 420-0360

‘헨젤과 그레텔’, ‘검장이 정보’

일시 : 4/1-4/30

평일 11시(단체), 2시

주말 12시, 2시 공연

장소 : 현대아트홀

문의 : 02)552-2775, 552-2233

* * * * *

3월 연립회 구비 도서/자료 목록

‘일본 보육제도 조사보고(95.2.6~2.10)’, / 서울시 가정복지국

전국 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창립총회 자료집

기자가 원하는 어린이책 목록 /

어린이도서연구회

월간유아 95.3월호 / (주)한국유아교육원

어린이집 입학 안내서 /

서울시 성동구 민보련

동화읽는 어른 34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마음을 살피우는 글 읽기 80호 /

어린이도서연구회

‘민간복지기관법안 입법청원을 위한 범시민 공청회’ 자료집

사회발전을 향한 지방자치 /
 송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한국여성NGO위원회 소식2호 /
 한국여성NGO위원회
 NGO보고서 작성준비 심포지움 /
 한국여성NGO위원회
 동아시아 여성포럼 보고와 북경여성대회 준
 비회의 / NGO한국위원회
 여성정치 '95 신년호 /
 (사)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
 한국여성연구회 회보 제42호 /
 한국여성연구회
 전북여성의 전화 12호 /
 (사)전북여성의 전화
 베틀 83호 / (사)한국여성의 전화
 전북여성 8호 / 전국여성운동연합
 기독교성 1,2월호 / 기독교민회
 함께 가는 여성 95.3월호 / 한국여성민우회
 일하는 여성 95.2월호 /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
 지역환경통신 10호 /
 내일을 위한 지역환경연구소
 다비타의 집 95년 1,2월호 / 다비타의 집
 산돌소식 16호 / 산돌노동문화원
 두레생태기행 95.3월호
 "21세기 한국"소식지(2) /
 21세기 한국연구소
 참계혁 준비 1호 /
 사회개혁국민운동연합 추진위
 한살림 3,4월호 / (사)한살림
 한살림 물품 목록 / (사)한살림
 시민체육 95.3월호 / 서울특별시 체육회
 월간 말 3월호
 학부모신문 95.3.6. /
 참고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건치신문 95.2.25.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병원노동자신문 95.3.10. /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서울시청뉴스 95.2.16.
 들소리신문 95.2.19.

기독신보 95.2.18.
 서울시청뉴스 95.2.23.
 주간 해피타임즈 95.2.27.
 노동자신문 95.2.28.
 서울시청뉴스 95.3.2.
 기독신보 95.3.4.
 유아교육신문 95.3.6.
 주간 해피타임즈 95.3.6.
 시대문신문 95.3.8.
 양천신문 95.3.9.
 노동자신문 95.3.10.
 기독신보 95.3.11.
 장애복지21 95.3.11.
 들소리신문 95.3.12.
 노동자신문 95.3.14.
 서울시청뉴스 95.3.16.
 들소리신문 95.3.19.
 노동자신문 95.3.21.
 *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모의선거운동전
 략회의」, 비디오를 보내주셨습니다.
 * 21세기 한국연구소 김광식 소장님의 저서
 「인간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열린책상
 권)」를 받았습니다.
 ** 새싹들의 방, 해송아기둥지, 일터 아가들
 의 집, 햇님어린이집, 햇살어린이집, 하나,
 둘, 셋 유아원, 둥근나라, 어린이사랑방의
 회지를 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저희 연합회로 귀한 자료와
 소식들을 전해주시는 여러 분들과 단체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인, 수익사업, 물론교한
 등의 정보를 실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구합니다. 본 회 소속 어린이집에서 활기찬 보육활동을 함께 하고자 하는 의욕찬 교사를 구합니다.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어린이집이나 본 회 사무 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চিতস পান্নে 농촌탁아소 재정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으로 칫솔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품질 보장에, 가격은 한셋트(4개입)에 2,500원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볼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네 아이들" 생산의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이면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희망자는 연합회로 신청하세요. "우리네 아이들" 편집부	지역보육운동, 아직도 못보셨다구요? 일본 보육운동의 산 증인 스즈키 쇼조 선생님의 교육관을 놀이, 가정, 지역, 인권 등의 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생활하는 보육교사의 필독서! 더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문의는 연합회로. 판매가 : 5,000원
♥ 소식지 통합본이 나왔습니다. 92년 5월 첫발행이었던 제1호부터 94년도 12월호까지 통권 26호의 '우리네 아이들'이 92, 93, 94년도별 3권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각권 20,000원 1세트(3권입) 50,000원	그림책 우편판매!! "우리네 아이들"에서 소개되는 좋은 그림책을 판매합니다. 판매가는 할인되지 않지만, 신청하신 회원들(자료회원 포함)께는 무료로 발송해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담당: 오윤정교육부장
◆ '95 보육사업지침 판 매 아직도 보육사업지침을 구입하 지 못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육사업지침을 추가로 판매하 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께선 지금 곧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판매가 : 4,000원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학인판매 본회에서는, 아동보육사업의 경영경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 체계적으로 수록한 [영유아 총서 :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이석무 저, 혜화당 권, 정가 11,000원)]을 정가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 으로 판매하고 있다. 판매 희망자는 본 연합회로 연락하거나 직접 방문 구입을 하면 된다. 판매가 : 10,000원(외부) 9,000원(내부, 자료회원)

■ 편집부에서

★ 자료회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지난호에서 이미 공고를 하였습니다만, 회원님들 자료회비가 인상된 사실을 알고 계시겠지요?

본 회 재정상의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자료회비를 인상하였습니다.

인상된 자료회비는 1년 25,000원, 6개월 13,000원입니다. 회비인상은 이번호부터 적용이 되구요, 단, "우리네 아이들" 구독기간이 만료되지 않으신 회원님들은 재구독하실 때 인상된 회비로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이쁜 얼굴을 보내주세요.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의 표지사진을 공모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주변에서 찍은 아이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사진이면 됩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반환이 가능하며, 사진공모에 응해주신 분이나 어린이집에는 작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자료회원 회비를 받았습니다.

6개월 구독 : 조이숙님, 현금희님, 임태종님

1년 구독 : 인천 민보련, 조남민님, 윤혜원님, 김현정님, 권혜진님, 동두천 하늘놀이방의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료회비인지 자료구입비인지 모를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정옥님, 강명익님 혹시 이소식지를 보고 계시면 전화를 주세요.

조이숙님, 임태종님, 김현정님, 조남민님 역시 입금확인 및 주소확인을 위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독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필히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합니다.

항상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편집부에서는 "우리네 아이들"의 내용을 보다 알차고 풍부하게 담을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과 애정을 부자할 신입 편집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의 전, 현직 교사나 기타 보육활동에 관심이 있으신 이들의 참여 바랍니다.

★ 有口無言

- 희연

★ 경은?

특별한 혜택일까?
이 랑글에?

.....

지금

새벽 1시 45분.

이 시간에 전화를 받는 이에게
축복을 주어야 할까?

아니면...

묻는 것이 쉬운 밤이다.

- 혜민

★ 뽕송송한 가운데에도 새 봄은 왔다.

- 미영

★ 마지막 편집을 하는 지금,

잠의 유혹을 떨치기가 괴롭다.

- 미혜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액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앞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3,000원 1년 구독 25,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외/탁/여/△/연/업/외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뒤편이: 정희연, 변미양, 주혜민, 황미혜
펴낸날: 1995년 3월 30일

판매가 : 3,000원